

전도 훈련 교재 II

코이노니아 생활전도

재림 성도의
영적 성장
과 정

· 3단계 ·
일꾼 되기



한국연합회
선교전략연구소

재림성도의 영적 성장 과정

Making Adventist Continuum



재림 성도의 영적 성장 과정

Spiritual Growing In Christ As The Adventist

전도 훈련교재 2



코이노니아 생활전도



한국연합회 선교전략연구소

오늘날 반드시 실천해야 할 교회의 중요한 기능과 사명은 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해 가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고,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의 교회가 세상을 교화시키는 사업을 위해서 신자들을 훈련시키고 적합하게 하기를 원하신다”(6T, 431).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인 일꾼들을 양성하는 학교가 되어야 한다”(MH, 135).

이 말씀과 같이, 교인들을 실제적으로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일이 각 교회마다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는 한 교회의 부흥과 사명의 성취는 요원(遙遠)한 일입니다. 그동안 재림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체적으로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일을 등한시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강조는 많이 하였지만 지역 교회 차원에서 실천은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니다. 교회 성장의 가장 기본 요소인 평신도 훈련을 이제라도 새롭게 시작해야 교회 미래에 희망이 있습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교회 성장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새 힘 2015’ 사업의 일환으로, 체계적인 재림성도 양육과정 시스템과 교재들이 제작되었습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이 방대한 작업을 완성시킨 선교전략연구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3단계의 과정을 13권의 교재로 공부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 양육 교재가 각 교회에서 적절하게 사용되어 새로운 부흥과 성장의 역사가 한국의 모든 재림교회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2015년 9월
한국연합회장 / 목회부장 김대성

1. 코이노니아 생활전도란?

고후 13:13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아름다운 에덴동산에서 사람이 거할 때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완전한 '교통하심'(코이노니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고, 죄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파괴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교통하심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통인 코이노니아를 온전히 회복시키는 분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사람사이의 코이노니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분만이 인간사이의 관계를 완전한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초대 교회의 모든 신자는 코이노니아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떡을 떤었고, 이웃을 구제하며, 모든 재산과 물건을 서로 통용함으로 완전한 코이노니아, 다시 말해 진정한 '교통하심'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므로 코이노니아 생활전도란,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를 맺음으로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를 회복하고, 내가 만나고 사귀는 모든 사람에게 나와 함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일상생활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소개함으로 나의 이웃도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를 회복할 뿐 아니라 성도간의 코이노니아를 회복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코이노니아의 범주 '오이코스'

행 16:31~34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오이코스)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침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 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 말씀에서 '집'이라는 단어가 '오이코스'란 단어인데 여기서 '집'의 의미는 단순히 건물이나 가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속한 모든 사람, 즉 한 집 안에 거주하는 친척, 고용인, 방문객까지도 포함하여 포괄적 의미의 '확대된 가족'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교제에서 사용될 '오이코스'란 단어의 의미는, 나의 삶의 주변 인물들, 즉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 나의 생활 가운데 만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성경 사도행전에 나오는 고넬료(행 10:17~33)와 빌립보 감옥의 간수(행

16:31~34)의 경우가 바로 자신의 ‘오이코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의 예입니다.

그들은 복음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자신의 권속,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두 초청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전도 대상은 자신의 가족을 뛰어넘어 자신과 관계 있는 모든 사람이었습니다.

삶의 현장, 즉 가정, 교회, 직장, 학교,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이런 저런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바로 나의 ‘오이코스’ 범주에 들어갑니다.

3. 왜 코이노니아 생활전도이어야 하는가?

코이노니아 생활전도는 한마디로 ‘관계 중심 생활전도’입니다. 코이노니아 생활전도는 주위 비신자들과 가족처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 좋은 관계망을 통해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 방식입니다.

예수님을 비롯한 성경의 인물들, 특별히 초대 교회의 성도들은 주로 생활 전도를 통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의 삶이 곧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많은 인물, 즉 안드레, 마태, 삭개오, 사마리아 여인, 고넬료, 루디아, 빌립보 감옥의 간수 등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 후 즉시 그들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인 가족, 친지, 친구들에게 전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의 복음 전도의 우선순위는 자신의 삶과 가장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기독교 연구기관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교회에 다니게 되었는지를 조사해 보니, 85퍼센트 이상의 사람이 부모나 친척 또는 친구나 가까운 이웃을 통해 교인이 되었다는 조사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누구에게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한 지표를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코이노니아 생활전도의 장점

- ① 일회성 전도가 아닌 지속적인 전도입니다.
- ② 방법이나 기술이 아닌 생활전도 방식입니다.
- ③ 종교적인 편견을 최소화하는 관계전도 방식입니다.
- ④ 이론이나 말하는 전도가 아닌 보여 주는 전도 방식입니다.
- ⑤ 혼자 고군분투하는 전도가 아닌 동역자나 소그룹이 함께하는 전도 방식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만 사람들과 접촉할 때 참성공을 거둘 것이다. 구주께서는 사람들의 유익을 소원하는 분이로서 그들과 섞이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에 대한 당신의 동정심을 보여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 봉사하시고, 그들의 신임을 얻으셨다. 그 후에 그분께서는 ‘나를 따라오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다”(선교, 119).

“친절한 방법으로 그대의 이웃들을 방문하여 그들과 친근해지라. ...이 일을 하지

않는 자들과 어떤 사람들이 나타난 무관심으로 행동하는 자들은 머지않아 그들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들의 형제들을 비난하고, 비평하고, 정죄하게 될 것이다”(구호, 78~79).

“설교하는 데 시간을 더욱 적게 쓰고, 개인적 봉사에 많은 시간을 썼을 것 같으면, 더욱 큰 결과가 나타났을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구제를 받고, 병든 사람들은 간호를 받고, 슬픔과 사별(死別)을 당한 사람들은 위로를 받고, 무지한 사람들은 가르침을 받고,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권면을 받아야 한다. 우리는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해야 한다. 설득력과 기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수반될 때, 이 사업은 결실이 없지 않을 것이며, 또한 없을 수도 없다”(치료, 143~144).

4. 본 교재의 구성

본 교재는 아래와 같은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코이노니아 생활전도 훈련학교를 이끄실 훈련 지도자께서는 아래의 각 항목의 설명을 자세히 읽으시고, 각 항목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잘 이해하신 후 훈련에 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① 기억절

코이노니아 생활전도 훈련학교의 매 과마다 그 과에 꼭 필요한 암송 성경절을 제시하였습니다. 말씀 암송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력이며 힘의 원천입니다.

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실생활에서 암기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삶을 주장하고 인도하게 될 때, 삶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매 과의 첫 번째로 제시된 암송 성경절을 모든 훈련생이 암송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암송의 비결은 큰 소리로 읽음으로 그 말씀이 먼저 입에 익숙해져야 하고, 말씀 암송 카드를 사용하여 일주일 동안 자신의 삶 속에서 매 순간 반복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암송 성경절을 소리 내어서 하루에 열 번 이상 읽도록 격려하시고, 꼭 말씀암송카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말씀 암송에 어려움을 겪는 훈련생이 계시다면 훈련 지도자와 모든 소그룹 구성원이 함께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주며 격려하여 코이노니아 생활전도 훈련학교에 입학한 모든 학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생각과 입술에서 떠나지 않음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한마음으로 서로 돕는 일은 지도자나 훈련생들이 코이노니아 생활의 실질적인 체험이 될 것입니다.

② 시작활동

매 훈련의 시작활동으로 '코이노니아 친해지기' '코이노니아 컨테스트' '코이노니아 퀴즈' 등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시작 시간의 어색함을 덜어주며, 그 날 배울 주제를 활동으로 미리 맛보는 시간입니다. 훈련에 참여하는 모든 훈련생이 시작활동을 통하여 더 친근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③ 기억해 봅시다

2과부터 구성되어 있는 ‘기억해 봅시다’ 항목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중 핵심사항을 복습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매 교육 시간이 연결됨을 훈련생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④ 코이노니아 합심 기도회

코이노니아 합심 기도회는 본 훈련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본격적인 그날의 훈련을 시작하기에 앞서, 합심 기도회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을 초청하고 모든 훈련생이 한마음이 되어 그날에 배워야 할 모든 것을 잘 배우고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간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날의 훈련을 끝내면서 오늘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활에서 실천하고 적용하기를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우시도록 결심과 끈기를 간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만큼은 시간이 부족함 없이 충분히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재에 있는 기도 제목뿐 아니라 훈련 지도자가 훈련생들에게 꼭 필요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이 시간에 함께 나누십시오.

⑤ 말씀 속으로

‘말씀 속으로’는 그날의 훈련의 가장 중요한 성경적 원리를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본 항목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⑥ 생활 속으로

‘생활 속으로’의 시간은 ‘말씀 속으로’에서 배운 성경적 원리를 실생활에서 실천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말씀 속으로’에서 배운 성경적 원리와 원칙이 그저 이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내 삶이 성경적 원리와 원칙을 따르기 위하여 어떠한 훈련을 해야 하는지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⑦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이 시간은 그날 배우고 훈련한 내용 중 핵심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반복하여 복습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모든 훈련생이 그날 훈련한 내용 중 꼭 기억해야 할 것들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⑧ 코이노니아 함께 찬미하기

이 시간은 마지막 찬미와 기도의 시간입니다. ‘코이노니아 함께 찬미하기’ 시간을 더 감동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다 같이 일어나서 손을 잡고 찬양한다거나 짝 기도, 그룹 기도회를 운영하시면 좋습니다. 또한 교재에서 제시한 찬미곡 보다 더 좋은 곡이 있다면 바꾸셔도 무방합니다. 대신 반주를 준비하거나 찬양할 곡이 영상매체를 통해서든 유인물을 통해서든 가사와 악보를 볼 수 있게 해 주어야 합니다.

⑨ 미리 보기

‘미리 보기’ 시간은 그날 훈련을 마치고 한 주일 동안의 삶 속에서 꼭 기억해야 할 내용과 다음 시간을 준비하기 위한 숙제 그리고 다음 과의 암송 성경절을 제시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훈련생들이 다음 시간에 어떠한 내용에 대하여 훈련을 하며, 그 시간을 위하여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본 교재를 통하여 훈련학교를 인도할 지도자(교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사항

① 코이노니아 생활전도 훈련학교는 교육이 아닌 훈련 과정입니다.

코이노니아 생활전도 훈련학교를 운영하면서 지도자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사항은, 코이노니아 생활전도 훈련학교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과정을 넘어서 우리의 실제의 삶 속에서 복음의 능력이 경험되고, 아름다운 전도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본 교재에서 제안하는 복음 생활의 기본기들을 끊임없이 의식화 및 체질화시키고자 하는 훈련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훈련에는 반복과 실습 및 실천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도자는 훈련생들이 복음 생활의 기본기들을 익히도록 중요한 시점마다 반드시 점검하고 반복 훈련시킴으로, 훈련생들이 건성으로 또는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복음 생활의 기본기들이 완전히 체질화 될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본 코이노니아 생활전도 훈련학교의 성패는 바로 이러한 훈련의 특징을 잘 살리느냐 못 살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지도자가 먼저 훈련가로서의 다짐과 코이노니아 생

활전도 훈련학교 교재를 철저히 습득하고 자신의 삶에 적용해 가르침으로써 배우고 함께 성장한다는 교학상장(敎學相長)의 철학을 확고히 가져야 합니다. 이 교육과정을 통하여 지도자가 먼저 나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내가 위하여 기도하는 영혼들의 마음을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하심을 경험함으로 풍성한 은혜와 전도의 열매를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② 코이노니아 생활전도 훈련학교는 동기 유발을 하면서 진행되는 훈련 과정입니다.

이 훈련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훈련생들에게 충분한 동기가 제공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훈련생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복음 전도의 삶을 위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동기 유발은 이론이나 교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본 교육을 시작하기에 앞서 매 시간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 전과 매 교육 시간을 끝내기 전에 있는 ‘코이노니아 합심 기도회’ 시간을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 교육 시간마다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는 간절한 기도로 말미암아 초대 교회의 뜨거운 복음 전도의 열정과 결과가 귀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③ 코이노니아 생활전도 훈련학교는 일회성 행사가 아니고 지속적인 훈련 과정입니다.

본 교육훈련은 한 번 정도의 행사로 경험해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삶의 체질을 변화시켜 일상생활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전도의

열매가 계속해서 맺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속적인 훈련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본 교육 과정의 지도자는 코이노니아 생활전도 훈련 과정 중 복음 생활의 기본기에 해당되는 것들을 끊임없이 상기, 반복, 실습, 기도,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본 교육훈련은 훈련 과정도 중요하지만 훈련 이후가 더욱 중요하고 성공적인 훈련의 결과를 얻으려면 수료자들을 소그룹으로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서로 격려하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④ 코이노니아 생활전도 훈련학교는 교회의 전도, 양육에 관한 전체의 큰 계획 중의 한 부분입니다.

본 교육훈련은 성도들이 먼저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하여 거룩한 예수님의 삶의 모본을 따라 살며,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이 주변의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들을 나의 삶의 반경(집, 소그룹, 교회) 내로 초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까지만 교육훈련 범위를 제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새 신자가 교회에 들어와서 양육받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본 교육훈련을 실행하기에 앞서 교회의 전도, 양육에 관한 전체적인 큰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 본 교육은 그저 하나의 행사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본 교육을 실행하는 지도자가 교회의 전도, 양육에 관한 전체의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성도들의 전도훈련 부분에 본 교육훈련을 활용하면 좋을 것입니다.

1편 좋은 나무(1~5단계)

Lesson
01

좋은 나무...16

Lesson
02

나는 누구인가?...29

Lesson
03

본업 회복하기...44

Lesson
04

성령과 기도에 집중하기...59

Lesson
05

나의 삶이 복음입니다...73

2편 좋은 열매(6~7단계)

Lesson
06

오이코스를 품으라...88

Lesson
07

오이코스와 친해지라...104

3편 추수하기(8단계)

Lesson
08

오이코스를 초청하라...119

부록

1. 예화...134
2. 간증문 작성 시 참고 자료...137
3. 수용성에 따른 오이코스 초청 전략...155

좋은 나무

코이노니아 생활전도 훈련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제부터 8주간 진행될 코이노니아 생활전도 훈련학교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바른 생활, 하나님과의 연결된 삶을 통하여 내 주변의 여러 사람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자연스러운 풍성한 열매를 수확하는 기쁨을 맛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코이노니아 친해지기



제목 : 몸으로 말해요



코이노니아 생활전도 훈련학교를 시작하는 소그룹의 구성원들과 아이스 브레이킹(어색함 깨트리기) 시간을 가짐으로 어색함을 떨치기 위해 활발하게 진행되는 게임을 통하여 옆 사람들과 신체적인 접촉을 가짐으로써 한 가족 공동체로서의 연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마음이 따스해지고 서로의 마음이 모아지는 시간을 위해 이 시간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여러 질문에 소그룹 구성원들이 함께 대답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대답은 다음의 행동으로만 해야 합니다.

1. 먼저 두 명씩 짝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2.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예'라면 옆 사람과 포옹하고,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요'면 옆 사람과 등을 땁니다. 짝을 지은 사람 중 한 사람은 대답이 '예'이고 다른 사람의 대답은 '아니요'라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등을 안는 형식이 되겠죠? 그리고 답을 모르거나 질문을 이해하지 못할 때는 두 손으로 X 자 표시를 합니다.
3. 인도하는 지도자가 앞을 보면서 등을 안고 있는 사람이거나 두 손으로 X 자 표시를 한 특정

정한 사람을 지목하여 세부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좋아하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대답한 사람에게 '왜 운동을 싫어하게 되었나요?'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 게임의 장점은 소그룹의 구성원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서로 몸으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고 짧은 시간 내에 구성원들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질문 예)

노래를 부르는 것을 좋아하나요?

줄서서 기다리면 짜증이 나나요?

운동하는 것을 좋아하나요?

읽는 것을 좋아하나요?

많은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나요?

오늘 '사랑해'라는 말을 하고 싶은 사람을 만난 적이 있나요?

자신이 적극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사람들은 당신이 친절한 사람이라고 평가하나요?

서로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늘에서 만날 당신, 미리 만나 반갑습니다.'

'머리에 진리를, 가슴엔 사랑을, 두 손엔 기도를'

코이노니아 합심 기도회



- ① '좋은 나무' 1단계 훈련을 통하여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듯이 내가 좋은 나무가 되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②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셔서 오늘의 순서를 통하여 소그룹 구성원 모두가 한마음이 되고, 우리의 사명을 깨달을 수 있도록

③ 이제 처음 시작하는 코이노니아 생활전도 훈련학교가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시작한 모든 소그룹 구성원이 함께 졸업할 수 있도록



코이노니아 합심 기도회를 정말 은혜롭고 힘 있게 이끌어야 합니다.

기도만큼은 시간에 쫓김 없이 충분히 해야 합니다.

교재에 있는 기도 제목들을 인도자가 자신의 말로 잘 풀어서 설득력 있게 제시하십시오.

말씀 속으로



마 7:17~18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고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듯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기 마련입니다. 나무가 자라는 과정을 보면 처음에는 씨앗에서 싹이, 다음에 줄기와 잎과 꽃이 그리고 열매가 맺히는 것을 봅니다. 그 후에 농부가 열매를 따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안에서 튼튼하게 자라서, 먼저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나무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 5:16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빛 된 삶과 착한 행실을 통하여 우리의 오이코스들이 하나님이 좋은 분이신 줄 알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연스러운 복음 전도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코이노니아 생활전도 훈련학교 교육생 모두가 나의 이웃에게 축복의 통로가 됨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읍시다.

좋은 나무가 되면 자연스레 좋은 열매가 맺히고, 좋은 열매가 맺히면 저절로 풍성한 추수가 기약됩니다.

좋은 나무 → 좋은 열매 → 풍성한 추수

그러므로 코이노니아 생활전도는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좋은 나무가 되자는 운동입니다.



좋은 나무란?

1. 좋은 나무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시 1:3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나무의 역할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무엇보다도 나무는 이 세상 모든 생명체의 생명소인 산소를 발산합니다. 나무가 없다면 이 땅 위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무가 이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남에게 베풀기 위하여 자신도 생명의 근원에서 끊임없이 공급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가 되는 그리스도인은 그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가까이 연결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생명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좇아 풍성을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과 연결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자연스럽게 풍성한 축복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2. 좋은 나무란 늘 베풀고 섬김으로 새들이 깃듭니다.

마 13:31~32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셸 실버스타인(Shel Silverstein)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야기를 아십니까?

나무는 시원한 그늘, 아름다운 꽃, 그윽한 향기, 맛있고 영양가 있는 과일, 아름다운 풍경, 마지막에는 그의 몸까지 목재로 내어놓습니다. 아낌없이 자신의 전 존재를 내어놓는 것입니다.

나무는 오로지 베푸는 존재입니다. 나무는 미운 사람과 고운 사람을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베풀기만 합니다. 가지는 잘리고 열매는 빼앗기고 제 몸이 베이고 썩어져도 말 한마디 없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향기를 내고 열매를 맺고 산소를 발산하여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할 따름입니다.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와 같은 좋은 나무가 된다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갖 새(오이코스)들이 깃들 것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새들의 노랫소리가 우리의 주변에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 하늘나라가 시작되기를 꿈꿔 봅시다.

3. 좋은 나무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막 10:45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좋은 나무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땅에 섬김을 받기 위해 서가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오셨다고 합니다. 섬김도 단순한 섬김이 아니라 목숨을 내어 주기까지 섬기려고 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좋은 나무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요 15:5)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좋은 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예수님으로부터 끊임없는 생명을 공급받아야만 우리도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 격려합시다!

예수님을 닮은 좋은 나무가 되어 교제와 사귄을 통하여 일상생활에서 나의 오이코스들을 주님께로 인도합시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만일 과실이 맛있고 가치가 없다면 그 나무는 나쁜 나무이다. 그와 같이 생애 가운데 열리는 열매는 마음의 상태와 품성의 탁월성에 대하여 증언해 준다. 선한 행위로 결코 구원을 살 수 없지만 그것은 사랑으로 행하고 심령을 깨끗하게 하는 믿음의 증거이다. 그리고 영원한 상급은 우리의 공로 때문에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행하여진 행위에 비례될 것이다”(소망, 314).

서로의 삶 나누기



1. 지금까지 당신의 삶에 축복의 통로가 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2. 당신의 오이코스를 대략 숫자로 표현한다면?

아마 _____ 명 정도일 것입니다.

당신은 그중에서 누구에게 가장 먼저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습니까?

3.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좋은 나무인가?’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당신이 대답하는 데 가장 주저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좋은 나무의 품성은 '부자유친'입니다.

좋은 나무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부자유친'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부자유친'에는 팔복(마 5:1~12)의 삶과 성령의 9가지 열매(갈 5:22~23)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자유친'이란 무엇일까요?

'부드러움', '자상함', '유머', '친절'의 앞 글자를 모아 놓으면 '부자유친'이 됩니다.

① 부드러움(온유와 겸손과 관용)

부드러움은 살아 있는 생명체의 특성입니다. 살아 있는 것은 부드럽고 따뜻합니다. 딱딱하거나 차가워서 안 됩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과 얼굴과 자세로 주위 사람들을 섬기고, 감동을 주고받는 삶을 삽시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부드럽고 상냥하고 신실하고 활기찬 감동의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② 자상함(배려)

자상함은 배려입니다. 자상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늘 세심하게 배려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극도의 이기주의 사회에서 '배려'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좋은 나무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③ 유머(유연함과 여유로움)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유연함과 여유로움이 있습니다. 삶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모든 것이 기쁘고 여유롭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④ 친절(사랑과 자비와 양선)

그리스도인은 누구에게나 친절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친절하게 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일반 사회와 기업에서도 고객 만족의 친절 서비스가 몸에 익숙해 있는 시대이지만, 겉으로의 친절이 아닌 그 마음에 사랑과 자비가 넘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친절한 말과 행동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길 바랍니다.

한 주일 동안 나의 오이코스를 만나 '부자유친'을 실천해 봅시다.

“그리스도인의 품성은 그의 매일의 생애 가운데 나타난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맺어야 할 열매를 묘사하고 있다. 그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엡 5:9)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다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갈 5:22~23)라고 말한다. 이 귀한 은혜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생애 가운데서 실천할 때에만 나타나는 원칙들이다”(성화, 80).



언약식 도입 멘트

오늘 우리는 코이노니아 생활전도 훈련학교를 시작하면서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언약을 맺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나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했는지 이제 후로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좋은 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 가고, 그 예수님을 닮아 나도 또한 내 주변의 오이코스들에게 좋은 나무가 되어서 생명을 전해 주며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로 성장하기를 결심하고, 그 결심을 하나님 앞에 서원하도록 합니다.

‘좋은 나무’ 헌신문

본인은 좋은 나무 되신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서
주변을 향기로 가득 채우고,
사람의 심성을 부드럽고 따뜻하게 하며,
생명을 주는 산소를 발산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로
나의 오이코스들을 섬길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이름

서명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 ① 코이노니아 생활전도란, 내가 만나고 사귀는 모든 오이코스에게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러운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② 우리의 오이코스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 ③ 좋은 나무란 좋은 나무이신 예수님처럼 늘 베풀고 섬김으로 우리 주변의 오이코스에게 생명을 전해 주는 나무입니다.
- ④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코이노니아 함께 찬미하기



다 같이 일어나 '참사랑 가진 자는'을 부릅니다. 그리고 한 주 동안 이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리스도께 헌신합니다.



오이코스 싱얼롱은 다 같이 일어나서 손을 잡고 하는 방식으로 열정적인 찬양이 되게 해 주십시오.

교재에 실린 곡보다 더 좋은 곡이 있다면 사용하셔도 좋고, 추천된 곡들 중 택일해도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사전에 반주자도 준비하고 찬양할 곡을 영상매체를 통해서든 유인물을 통해서든 가사와 악보를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기본곡 : 찬미가 587장 '참사랑 가진 자는'

추천곡 : 1.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2. 형제의 모습 속에

3.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4. 아픔의 축복

코이노니아 합심 기도회



- ① 코이노니아 생활전도 훈련학교 위에 축복의 근원이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넘치도록
- ② 코이노니아 생활전도 훈련학교를 통하여 우리가 먼저 좋은 나무로 준비되어서 서로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 ③ 코이노니아 생활전도 훈련학교를 통하여 우리가 각자의 오이코스에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도록

미리 보기



- ① 부록 1에 있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읽고 묵상합니다.
- ② 다음 단계의 훈련 '나는 누구인가?'의 암송절 뱀전 2:9을 전도수첩에 있는

말씀 암송표를 활용하여 암송합니다.

- ③ 한 주일 동안 같은 소그룹으로 코이노니아 생활전도 훈련학교의 8단계 훈련을 시작한 멤버들의 이름을 외우고 멤버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④ 전도수첩에 있는 성경통독표에 따라 매일 말씀 묵상을 생활화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좋은 나무로 성장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기억절

벤전 2:9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
 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코이노니아 생활전도 훈련학교 두 번째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나무의 품종, 즉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가장 먼
 저 필요합니다.

코이노니아 컨테스트



먼저 조별 대항 코이노니아 컨테스트를 하겠습니다.

각 소그룹의 구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코이노니아라는 말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훈련의 기억절을 테스트합니다.

코이노니아 퀴즈



사람의 첫인상은 _____ 안에 결정된다. 이때 결정된 첫인상을 바꾸려면 40회
 이상의 만남을 가져야만 개선할 수 있다.

1. 1~2초 2. 3~5초 3. 10~15초 4. 1분 5. 5분



사람들은 낯선 사람을 만나면 3~5초 동안의 첫인상으로 판단을 하며 세 가지 관점에서 평가하고 그에 맞는 처신과 대접을 합니다.

- ①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 ② “이 사람은 예의 바르고 중요한 사람인가? 무례하고 천한 사람인가?”
- ③ “이 사람은 나에게 유익한 사람인가? 손해를 끼칠 사람인가?”

MOT(Moment of truth) 개념

이 개념은 투우를 하는 소가 붉은색을 보고 흥분하는 2~3초에서 유래된 개념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첫 만남을 가질 때 3~5초 내에 이미지를 주고받게 되고 이것으로 첫인상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만나 3~5초가 지나기 전에 눈을 맞춰 밝게 인사하고, 인사한 사람과 마음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용 질문 1

우리교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첫인상을 어떻게 느낄까요?

적용 질문 2

새 신자가 우리 교회를 방문하여 교회 문에 들어서서 예배를 드리고 일련의 단계를 거쳐서 교회를 떠나는 때까지 어떠한 만남들(Moment of truth)이 있을까요?

* 좋은 첫인상을 만들기 위해 거울 앞에서 나에게 하는 질문

- ① 나의 얼굴은 미소를 잃고 있지 않은가?
- ② 나의 외모는 단정하고 세련되어 보이는가?
- ③ 나는 중요한 사람으로 보이는가?
- ④ 나는 친절하고 겸손해 보이는가?
- ⑤ 나의 얼굴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가?

* 미소란 상대방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 ① 나는 친절하며 상냥한 사람입니다.
- ② 나는 당신을 좋아하며 당신에게 호감을 갖고 있습니다.
- ③ 나는 진정으로 당신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 ④ 나는 당신이 중요한 사람임을 인정합니다.
- ⑤ 나는 당신과 친해지고 싶습니다.

기억해 봅시다



- ① 지난 한 주간 같은 소그룹으로 코이노니아 생활전도 학교의 8단계 훈련을 시작한 멤버들의 이름을 외우고 기도하기를 잊지 않으셨습니까?
- ② 부록으로 주어진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읽으며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 ③ 지난 한 주간 누구에게 ‘부자유친’을 실천하면서 지내셨습니까?

코이노니아 합심 기도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 부름 받은 자들입니다.

- ① 좋은 나무이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좋은 나무가 되어 나의 오이코스에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도록
- ② ‘나는 누구인가?’ 2단계의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정체성을 깨닫고 확신하도록
- ③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셔서 오늘의 순서를 통하여 우리가 한마음이 되고, 우리의 사명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좋은 나무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는 좋은 나무가 어떻게 되었고, 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벧전 2:9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1. 벧전 2:9이 보여 주는 그리스도인의 4가지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① 택하신 족속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교회는 봉사를 위하여 조직되었으므로, 그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총만과 풍족을 온 세상에 나타내려고 계획하셨다. 하나님께서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교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야 한다”(행적, 9).

② 왕 같은 제사장(축복의 통로)

구약 시대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다면 신약 시대의 제사장인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만약 모세가 아론과 미리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출 32:32; 민 12:13) 또한 롯과 그의 가족들을 위한 아브라함의

기도(창 18장)와 사무엘의 고백(삼상 12:23)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은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중보하고 계시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내 이웃의 죄악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하늘과 그들을 연결시켜 주어야 할 책임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인간들이 동료 인간들을 위해 일하는 것이 그분의 계획이다”(행적, 109).

③ 거룩한 나라(세상의 소금과 빛)

“소금은 첨가되는 물질과 섞여야 한다. 그것은 또 보존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첨가 물을 뚫고 들어가 그것을 절여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익을 주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 한다”(보훈, 36).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분의 말씀은 이와 같다.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고후 6:17~18).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을 완전히 또한 마음을 다하여 섬기는 한 백성으로서 구별되고,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가장 엄숙한 언약에 의하여 주님과 그분만을 섬기기로 스스로 맹세한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3보감, 286).

④ 그의 소유된 백성(하나님의 동역자)

우리는 하나님의 친백성(딤후 2:14)이요, 하나님의 가족(엡 2:19)이며,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 23편)가 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가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특권을 소

유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복음 전도의 삶입니다.

“전도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조력자(동역자)이다”(선교, 261).

2.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와 소명(* 부록 1 예화 참조)

① 잃어버린 자기 정체성

동화 속의 미운 오리 새끼는 자신이 백조인 줄 모르고 주변에 있는 오리 흉내를 내느라 자신의 품위와 우아함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 가장 시급한 것은 정체성과 자아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혹시 이 세상에서 미운 오리 새끼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백조임을 망각한 채 뒤뚱거리는 오리 흉내를 내느라 온 정신이 팔려 있지는 않습니까?

② 정체성을 알면 소명이 보입니다.

엡 4:1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소명은 우리의 궁극적인 존재 이유를 보여 줍니다. 소명을 통하여 인생의 방향을 확인하고 주신 사명을 깨달아 열정적인 사람이 됩시다.

③ 위대한 계명과 지상 명령에 나타난 우리의 소명

마 22:37~40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

지자의 강령이니라

마 28:19~20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서로의 삶 나누기



1. 당신에게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복음의 통로,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라는 건강한 자의식이 있습니까? 혹시 그런 자의식을 갖는 데 주저하게 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런 자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어떤 면에서 다른 점이 있게 될까요? 다음을 보고 말해 보십시오.

너무 부담스러운 삶이 될 것이다. ()

사람들에게 뭔가 약점이 잡히면 큰일 날 것 같다. ()

나의 삶을 좀 더 긍정적인 면에서 성찰하게 될 것이다. ()

사람들을 대할 때 내 멋대로 하고 싶은 마음을 조금은 억제하게 될 것이다. ()

뭔가 목표의식과 소명의식으로 충만해질 것 같다. ()

2. 점점 부패하고 도덕률이 무너지는 사회 속에서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일 뿐 아니라 세상 속으로 빛과 소금으로 침투해 들어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
 입니까?

분주한 세상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

텔레비전, 인터넷, 스마트폰 같은 미디어와 멀어지는 것 ()

제자훈련 받는 것 ()

나에게 힘을 주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나 소그룹에 속하는 것 ()

날마다의 말씀 묵상 생활 ()

기타

3. 뱀전 2:9에 기초한 나의 정체성 중 가장 연약한 부분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건강하다	보통이다	약하다	심히 약하다
택하신 족속으로서 구원의 확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복음의 통로				
거룩한 나라로서 빛과 소금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동역자				

4. 내가 백조로서의 자의식을 잃고 뒤뚱거리며 미운 오리 짓을 했던 아픈 경험이
 있었다면 용기 있게 나누어 보십시오. 또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백조 신분을 잃
 고 오리 짓을 하게 되는지 다음에 따라 말해 보십시오.

나는 백화점만 가면 나의 신분을 망각하게 된다. ()

나는 누군가와 경쟁적인 상황에 놓이기만 하면 나의 신분을 망각하게 된다. ()

나는 시내에서 운전할 때 가끔씩 나의 신분을 망각하게 된다. ()

나는 사업상 상대를 만나서 나의 이익에 손해가 나면 나의 신분을 망각하게 된다. ()

기타

서로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아름다운 백조입니다.”

행 20:24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전도인의 생활 영성 '미인대칭'

나의 오이코스를 전도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먼저 복음이 되는 것', 즉 '변화된 인격과 삶'이 중요합니다. 변화된 인격과 삶은 '미인대칭'으로 나타납니다. '미인대칭'이란 미소, 인사, 대화, 칭찬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생활 영성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미인대칭'을 회복합니다.

미소 짓기

살전 5:16~18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인사하기

마주치는 모든 사람에게 먼저 자연스럽게 인사를 해야 합니다. 인사는 이웃에게 나 자신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방법이면서 친근감의 표현입니다.

대화하기

늘 주변인의 문제에 따뜻한 대화가 열리면 마음이 함께 열립니다. 관심을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과 정겨운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칭찬하기

사람들을 늘 칭찬하고, 격려하며, 희망을 주고,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칭찬을 듬뿍 안겨 드립니다.



우리 모두 '미인대칭'을 생활화하여 그리스도인의 매력과 향기와 능력을 회복하고 주변인들 사이에 늘 잔잔한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감동을 전해 주는 사람이 됩시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활기찬 감동의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굴 전도지 활짝 펴세요!



미소 · 인사 · 대화 · 칭찬

아래의 문장을 읽고 나 자신에 대해 평가해 봅시다.

① '미인대칭' 가운데 당신이 강한 것과 약한 것은 무엇인지 적어 보십시오.

강한 것 :

약한 것 :

② 당신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두 사람에게 찾아가거나 전화를 해서 나의 '미인대칭'의 삶과 관련해서 삼자의 입장에서 본 나의 강점과 약점이 무엇인지 솔직하게 말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소그룹원끼리 나누어도 좋습니다).

첫째 사람이 말하는 나의 강한 것 : 약한 것 :

둘째 사람이 말하는 나의 강한 것 : 약한 것 :

③ 당신의 생각과 다른 두 사람이 말한 것과 비교해 보고 종합해 보십시오.

강한 것 :

약한 것 :

④ 이제 당신의 약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 당신이 실제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강한 것을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할 일은 과연 무엇인지 적어 보십시오.

약한 것에 대한 보완점 :

강한 것을 더 보강할 점 :



한 주일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오이코스에게 '미인대칭'을 실천합니다.



언약 맺기의 중요성

삼상 18:1~3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 아비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과 다윗의 두 마음은 하나로 이어지게 되어 언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언약은 악을 저지하여 서로의 목숨을 지켜 주었고,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우정을 갖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언약을 지속적으로 지켜 나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코이노니아 생활전도 훈련학교를 함께 시작하는 나의 가족(소그룹원들)들과 함께 언약을 맺어 이 훈련 과정이 마칠 때까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주며 격려하며 서로를 세워 주기를 언약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은 결코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탄은 앞으로의 훈련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일로 우리를 낙심시키 중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합심하여 기도하는 나의 동역자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서로의 기도로 이 훈련 과정을 잘 끝나치고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 풍성한 추수를 경험하는 모든 훈련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1. 우리 소그룹의 구호		
2. 우리 소그룹의 모임시간		
<p>3. 우리 소그룹의 기본 규칙</p> <p>1) 우선순위 : 나는 모임에 속해 있는 동안, 우리 모임에 우선순위를 둘 것입니다.</p> <p>2) 신뢰 : 나는 모임에서 내가 해야 할 과제와 역할을 신실히 수행할 것입니다.</p> <p>3) 격려 : 나는 모임 중 늘 감사하고 서로 격려하여 대화에 적극 참여할 것입니다.</p> <p>4) 합심기도 : 나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나의 오이코스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p>		
<p>위의 언약을 반드시 준수하겠습니다.</p> <p>_____년 _____월 _____일</p>		
NO	이름	서명
1		
2		
3		
4		
5		
6		
7		
8		
9		
10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 ① 하나님께서 나를 좋은 나무로 택하셨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축복의 통로로 자라게 되기를 원하시며 거룩한 나라로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행하신 아름다운 덕을 전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셨음을 잊지 맙시다.
- ② 나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도록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것이 되었든지 나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위해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을 간구하기 위하여 잠시 개인적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오.

코이노니아 함께 찬미하기



다 같이 일어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를 부르십시오. 그리고 한 주 동안 이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리스도께 헌신하십시오.



기본곡 : 찬미가 594장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 추천곡 : 1. 평안을 너에게
2.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3. 나의 모습 나의 소유
4.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코이노니아 합심 기도회



- ① 내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임을 깨닫고 나의 신분에 합당한 삶을 위하여
- ② 나의 삶 속의 부족한 부분들을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채움 받기를
- ③ 내 삶의 모습을 통하여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 ④ 함께 코이노니아 생활전도 훈련학교를 시작한 소그룹원들의 언약이 깨어지지 않기를

미리 보기



- ① 아침마다 깨어날 때 뱀전 2:9을 암송하는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습관을 들임으로 시냇가에 심겨진 좋은 나무가 됩시다.
- ② 정체성을 알면 소명이 보입니다. 뱀전 2:9을 토대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소명에 대해 소그룹 멤버 중 한 사람 이상과 주 중에 통화하도록 합시다.
- ③ 코이노니아 생활전도 학교의 3단계 '본업 회복하기'의 기억절 행20:24절을 전도수첩에 있는 말씀 암송표를 활용하여 암송 하십시오.

본업 회복하기

기억절

행 20:24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 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코이노니아 생활전도 훈련학교에 다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되는 삶을 배우고 있는데, 그것을 나무가 자라는 것에 비유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고,
둘째는 좋은 열매 맺기이며,
셋째는 풍성한 추수하기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좋은 나무 되기의 '나는 누구인가?'에 이어 3 단계 '본업 회복하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본업 회복하기'는 좋은 나무의 '뿌리 내리기'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뿌리가 땅속 깊숙이 내려야 크고 좋은 나무로 자랄 수 있습니다.

코이노니아 연습하기



누가 누가 미인대칭을 잘하나?

우리 각자가 나의 오이코스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특별히 좋은 관계를 맺는 삶의 변화가 많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지난 2단계 훈련에서 배운 '미인대칭'이 우리의 삶에 언제나 체질화, 생활화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연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 모두 일어나십시오.
2. 이제 스티커 카드를 하나씩 받으십시오.
3. 자리에 그냥 서 계시지 말고 전체 멤버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사회자의 인도에 따라 한 번에 30 초씩 '미인대칭'을 실천하십시오. 마주 선 두 사람이 '미인대칭'을 하고 나면 1분이 걸리겠죠?
4. 지도자가 '그만!' 하면 상대방이 자신에게 얼마나 감동적으로 '미인대칭'을 했는지 스티커를 상대방의 얼굴에 붙여 줌으로써 표시하십시오. 아주 감동적이었으면 5개, 보통이면 3개, 보통 이 하면 2개를 붙여 주십시오.
5. 지도자의 인도에 따라 각자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앞의 방식과 똑같이 합니다.
6. 모든 멤버가 스티커를 10장 이상 받을 때까지 반복해 봅시다.

기억해 봅시다



- ① 지난 한 주일을 살아가면서 아침에 깨어날 때마다 뱀전 2:9을 떠올리셨습니까? 또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충분한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시냇가에 심긴 좋은 나무의 삶을 사셨습니까?

② 지난주 소그룹 멤버 중 적어도 한 명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소명에 대하여 전화로 통화하셨습니다니까?

③ 이번 단계의 기억절(행 20:24)을 암송하고 예습하셨습니다니까?

코이노니아 합심 기도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의 본업은 복음 전도입니다.

- ① 복음 전도에 대하여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떨칠 수 있도록
- ② 오늘 배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본업이 예수님을 본받아 재조정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 ③ 좋은 나무가 되어 축복의 통로로서 사는 삶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자신감을 얻을 수 있도록

말씀 속으로



딤후 4:2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우리가 오이코스에게 전해야 할 것은 복음,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행하는 자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시는 약속입니다. 선교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본업이요 사명인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 합시다.

딤후 4:2의 말씀을 따라서 오로지 복음 전도에 집중하는 삶을 살고, 나의 오이코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시다.

행 5:42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행 8:4 그 흠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초대 교회 성도들의 삶은 그들의 본업에 충실한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그리고 흠어져서 예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으로 개심한 사람들은 ‘한마음과 한뜻이’ 되었다. 그들은 하나의 공통된 관심, 곧 그들에게 위임된 사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일로 마음이 가득 차서 탐심이 자리 잡을 여지가 없었다. 형제들과 저희가 지지한 사업에 대한 사랑이 그들의 돈과 소유물에 대한 애착보다 훨씬 더 컸다. 그들의 행위로 보아 그들은 사람들의 영혼을 세상 재물보다 더욱 가치 있게 여긴다는 것이 분명하였다”(행적, 70~71).

우리는 본향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임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즉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은 아침 안개와 같이 잠깐이고, 모든 육체는 한갓 풀과 같아 곧 시들고 인생의 영광은 꽃과 같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늘에 시민권(빌

3:20)을 둔 성도들입니다.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성도들의 본향이 하늘나라라면, 성도의 본업은 하늘나라를 증거 하는 일, 즉 복음 전도임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은 본향을 바라보며 본업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이는 오늘날 재림성도가 회복해야 할 첫 번째 과제입니다.

오늘날 재림교인들은 하늘나라가 본향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본업은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1. 본업 회복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최대 과제는 하루 빨리 본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가 본업임을 분명히 할 때 전도 생활이 가능합니다. 복음 전도가 우리의 본업이라면 적어도 다음의 3가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 ① 복음 전도의 우선성
- ② 복음 전도의 체질화, 생활화
- ③ 모든 일을 복음 전도와 연결하는 것

당신의 일상생활 속에서 복음 전도는 어떤 위치에 놓여 있습니까?

2. 주님의 본업을 우리의 본업으로



주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하셨던 일을 면밀히 관찰하고 우리도 그 일들을 본업으로 삼고 살아가야 합니다.

막 1:38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막 10:45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다면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본업은 _____입니다.

우리의 본업도 _____입니다.

3. 모래시계

누구에게나 삶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나 개인의 죽음으로 복음 전도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변할 수 없는 확실한 세 가지 명제가 있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곧 재림하신다.

나는 죽는다.

선교 대상자도 죽는다.

당신은 얼마만큼 영혼을 구원하는 데 긴급성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까?

4. 재림신앙

오늘날 재림성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초대 교회 성도들은 항상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며 재림신앙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재림신앙이야말로 초대 교회 성도들이 본업을 놓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간절함과 긴박함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하다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고 싶습니까?



1. 당신에게 '복음 전도' 하면 떠오르는 첫 번째 생각이나 느낌은 무엇입니까?

부담스럽다. ()

내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것도 누군가가 내게 전도했기 때문이기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다. ()

사람들 나름대로 잘 알아서 사는데 우리의 종교를 그들에게 강요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한다. ()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오른다. ()

복음 전도의 긴박성을 알고는 있으나 먹고 사느라 바빠서 조금 미루어 두고 싶은 주제이다. ()

기타

2.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본업은 복음 전도였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본업을 자신의 본업으로 삼고 있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다음을 보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십시오.

구원받는 길은 다양하다는 종교 다원주의의 사고방식 때문이다. ()

알지만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

복음 전도를 하고는 싶지만 복음 전도자로서의 준비와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

기타

3. 당신에게 있어서 복음 전도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

구원의 기쁨과 감격 때문에 ()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

하나님의 소원을 차마 외면할 수 없어서 ()

지상 명령에 대한 책임 ()

교회 성장을 위하여 ()

그리스도인의 본분이기에 당연히 ()

기타

4. 복음 전도에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전도해야 할지 전도하는 방법을 몰라서 ()

전도에 대한 사명감과 열정이 부족해서 ()

생활이 너무 바빠 전도할 틈을 못 내서 ()

사람들에게 복음을 건넬 용기가 없어서 ()

내 문제가 복잡해서 남의 문제까지는 도저히 ()

영적인 대화를 시작하기 어색해서 ()

전도해도 안 될 것 같은 생각 때문에 ()

전도에 은사가 없으므로 ()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만난 깊은 경험이 없어서 ()

기타

자신의 장애 요소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복음 전도 사역을 수행할 것인지 서로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5. 다음에 나오는 말들은 우리 모두가 휴지통에 던져 버려야 할 것들입니다. 다 같이 한목소리로 다음의 글을 읽어 봅시다.

‘이제는 더 이상 복음 전도가 안 된다.’라는 말을 하지 맙시다.

‘새 가족이나 초신자들은 선교를 못한다.’라는 생각을 버립시다.

‘복음 전도는 전도 은사가 있는 교인들만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지 맙시다.

‘복음 전도를 하면 비신자들이 싫어한다.’라는 생각이야말로 휴지통에 들어가야 합니다.

‘복음 전도를 하려면 해외 선교지로 나가야 한다.’라고 말하지 맙시다.

생활 속으로



1. 사명서 작성하기

내 인생의 핵심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

핵심 가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요 17:4), 즉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사명서를 한 문장으로 간결하게 작성합니다.

[_____]

다른 사람들의 오이코스 사명서 엿보기

1. 오이코스가 먼저입니다.
2. 오이코스들을 신나게 해 주자!
3. 나는 오이코스 기쁨조
4. 너 딱 걸렸어!
5. 복음 그 자체가 되자!
6. 내가 선 곳이 땅끝이다.
7. 오늘이 마지막이다.
8. 내가 주님의 얼굴이다.
9. 주님의 대사가 되자.
10. 나는 주님의 손과 발
11. 축복의 통로가 되자.
12. 나의 얼굴이 전도지이다.



자신의 사명서를 옹기 있게 큰 목소리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 함께 오늘의 훈련과 나눔을 돌아보면서 기도합니다.

- ① 우리 각자의 본업이 예수님을 본받아 다시 조정되고 우리 삶의 각 부분 부분이 그 본업에 맞게 재정렬이 되도록
- ② 더 이상 복음 전도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지고, 복음 전도가 우리의 본업임을 명심하여 우리가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로서 사는 삶을 서로 격려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2. 마음을 여는 3가지 인격

“아름다운 인격은 감동을 자아내서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합니다.”



어떻게 인격이 아름다울 수 있습니까?

인격은 정원과 같아서 날마다 가꾸어야 합니다.

다음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3가지 인격입니다.

3가지 중 어느 하나만 제대로 갖추어져 있어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충분합니다.

당신은 다음 3가지 인격 중 어떤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① 친근성이 있는 인격

정답고 따뜻한 인격은 사람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 줍니다. 봄이면 어김없이 피어나 화사한 미소로 봄소식을 알리는 개나리와 같은 아름다움이 그들에게겐 있습니다.



어느 문화시민 단체가 다음과 같은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웃는 아파트, 인사하는 엘리베이터”

이 캠페인에 공감하십니까? 서로 얼굴을 마주쳐도 인사가 없는 한국인, 심지어 같은 아파트 단지나 건물에 사는 이웃에게도 인사하지 않는 한국인, 이러한 한국인의 생활양식이 반드시 달라져야 합니다.

이러한 캠페인을 벌이는 시민 단체를 만날 때 당신은 그들을 어떻게 격려하시겠습니까?

② 투명성이 있는 인격

맑고 진실된 인격을 대하면 마음이 절로 열리는 법입니다. 그들에게엔 아끼 사슴의 눈망울과 같이 맑고 진실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나를 열어 보여 주는 투명한 삶은 서로의 공통분모를 발견하게 함으로써 친밀성과 신뢰성을 가지게 합니다.



‘신뢰성의 뿌리는 투명성입니다.’ 당신은 어느 정도 투명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항 속 금붕어 형’입니까? 아니면 ‘진흙 속 마꾸라지형’입니까?

“성경은 모든 거짓과 거짓 거래 그리고 부정직을 매우 강한 어조로 정죄하고 있다. 옳고 그름은 명확하게 진술되어 있다”(4증언, 31).

③ 섬김이 충만한 인격

섬김이 충만한 인격에는 상큼하고 향기로운 매력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변을 은은한 향기로 가득 채우는 가을에 잘 무르익은 추석 과일과 같이 상큼한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 줍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겹겹이 싸고 있는 무관심과 무감동의 층을 뚫고 들어갈 수 있을까요?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당신만의 비장의 무기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당신은 현재 주변의 친구들, 직장 동료들, 이웃들에게 ‘마음을 여는 인격’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당신 자신이 ‘마음을 여는 인격’을 소유하기 위해서 반드시 절제해야 할 일 세 가지와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일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각각 다음에 적어 보십시오.

절제해야 할 일	
1	
2	
3	
추구해야 할 일	
1	
2	
3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 ① 초대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의 본업인 복음 전도의 삶을 다시 회복하고, 우리의 삶은 재림 나그네의 삶을 잊지 마십시오.
- ② 자신이 작성한 사명서를 다시 한번 읽어 보고, 그 사명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간구합니다.
- ③ 내가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하여 좋은 나무 되신 예수님의 품성을 닮기를 간구합니다.

코이노니아 함께 찬미하기



다 같이 일어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를 부릅니다.

그리고 한 주 동안 이 곡으로 찬양하며 가사를 통하여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한 주를 살아갑니다.



기본곡 : 찬미가 412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 추천곡 : 1.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2. 순례자의 노래
 3. 나를 향한 주의 사랑
 4. 주님의 증인

코이노니아 합심 기도회



- ① 나의 본업인 복음 전도자의 삶의 회복을 위하여
- ② 재림을 기다리는 간절함과 긴박함을 깨닫기 위하여
- ③ 내 삶에 복음 전도를 방해하는 무익한 것들을 버릴 용기와 믿음을 주시기를
- ④ 예수님의 사랑의 품성을 닦기를

미리 보기



- ① 복음 전도의 동기와 복음 전도의 장애 극복에 대해 나눈 이야기를 토대로 주 중에 서로 격려하는 전화나 문자, 이메일을 소그룹 멤버 중 최소 한 사람 이상에게 보냅니다.
- ② 4단계 '성령과 기도에 집중하기'의 기억절 요 15:26을 전도수첩에 있는 말씀 암송표를 활용하여 암송하십시오.

성령과 기도에 집중하기

기억절

요 15:26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 하실 것이요

다시 한번 기대되는 코이노니아 생활전도 훈련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좋은 나무가 되어 좋은 열매를 많이 맺고 풍성하게 추수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면 얼마나 보람 있고 행복하겠습니까?

바로 그런 삶을 배우고 준비하는 코이노니아 생활전도 훈련학교를 오늘도 열린 마음과 적극적인 자세로 맞기를 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십시오.

'하늘에서 만날 당신 미리 만나 반갑습니다.'

'당신은 나의 오이코스입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오이코스의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오늘은 4단계 훈련으로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하여 성령과 기도에 집중해야 함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코이노니아 게임



소그룹 안에서 가위바위보를 하여 진 사람을 한 명 뽑으십시오.

가위바위보에 진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난 죽어도 전도하기 싫어!”라고 말하면서 온갖 이유를 제시해 보십시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을 어떻게든 설득하여 “난 이제부터 복음 전도의 삶을 회복하겠다”라는 고백을 얻어 내십시오.

기억해 봅시다



- ① 지난 한 주 동안 아침마다 ‘본업 회복하기’의 기억절인 행 20:24을 떠올리며 일어나셨습니까?

다시 한번 행 20:24을 암송해 보십시오.

- ② 지난주 작성한 나의 오이코스 사명서를 자주 떠올려 보셨습니까?

다시 그 사명서를 새로운 마음으로 적어 봅시다.

[_____]

- ③ 복음 전도의 동기와 복음 전도의 장애 극복에 대해 나눈 이야기를 토대로 주 중에 서로 격려하는 전화나 문자, 이메일을 그룹 멤버 중 최소 한 사람에게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때 느낀 점을 한두 사람이 간단히 나누어 보십시오.



- ① 우리의 직업이 무엇이든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증인입니다. 하지만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을 자주 잊는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② 오늘 훈련을 통해 우리 각자가 좋은 나무가 되어 좋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 성령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배우도록 기도합니다.

말씀 속으로



1. 성령의 능력에 전적으로 의지하기

요 15:26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 하실 것이요

보혜사 성령님의 주된 사역은 구원의 복음인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서 새로운 피조물, 예수님을 닮은 품성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하나님의 뜻 안에 살게 하는 것은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서는 절대로 좋은 나무가 될 수 없고, 전도의 아름다운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죄인들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며 그들을 교회의 품에 안기게 하

신다”(선교, 68).

“변화는 오직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다”(RH 1890. 8. 26.).

“성령의 도움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곳은 어디든지 영적 가뭄, 영적 암흑, 영적 타락과 죽음이 나타나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능력을 받을 수 있는 방편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성령의 선물을 열망하지 않는가? 왜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말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에 관해 설교하지 않는가? 주께서는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선물을 주기를 원하는 것보다 당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더 원하고 계신다. 모든 교역자는 매일 성령의 침례를 위해 하나님께 탄원해야 한다”(행적, 50).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입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간절히 기도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2. 나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소원이 불타게 하라

대하 16:9 여호와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라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나의 기도 속에 왜 하나님의 소원이 불타야 할까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관심사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기에 기도도 당연히 자기 소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요즘 당신이 주로 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은 무엇입니까?

기도는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전도를 가능케 하는 힘의 원천입니다.

전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로, 우리는 그분의 도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전도의 열매는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 주신 오이코스들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잠기게 하십시오. 우리의 중보 기도로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중보기도의 혈액이 우리 몸에 흐름으로 기도가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땀을 흘려서 영혼을 섬기는 것은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기도하면서 전략을 세우고, 기도하면서 접근해서 기도 중에 메시지를 전하고 기도로 마쳐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중보기도를 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과 다름없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삼상 12:23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오이코스 중보 기도자의 마음은 바로 모세의 기도 속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출 32:32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사무엘 선지자와 모세의 중보기도가 당신에게 어떠한 동기를 부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지 물러의 중보기도 엿보기

5만 번 응답받은 기도로 잘 알려진 중보기도의 거장 조지 물러 목사는 매우 절찬한 친구 5명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시작한 지 5년 만에 그중 1명이 그리스도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2명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남은 두 친구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25년이 지난 후에 네 번째 친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습니다. 조지 물러 목사는 숨을 거두기 직전까지 마지막 남은 친구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가 죽은 지 몇 달 안 되어 이 친구도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참된 중보 기도자는 결코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열성적인 전도는 열성적으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도자는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전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인도함을 받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기도의 기본기가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이길 수 없습니다(마 26:36~46 참조).

우리가 열심히 관계를 맺고, 이야기를 나누고, 권면하지만 반응하고 결심에 이르게 하는 일은 성령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를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가게'(행 26:18) 하는 데는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복음 전도자의 삶은 간절한 기도로 말미암아 한 영혼을 변화시키시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놀랍고 은혜와 능력이 넘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된 하루를 마감하는 기도의 시간에서 돌아오실 때, 그들은 그분의 얼굴에서 평화의 모습, 곧 전신을 휩싸고 있는 듯한 상쾌함을 보았다. 그분은 아

침마다 하나님과 더불어 시간을 보낸 후에야 사람들에게 하늘의 빛을 전하기 위해 나가셨다. 제자들은 그분의 말씀과 사업의 능력이 그분의 기도 시간과 관련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제 그분의 간구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들은 마음이 위엄에 놀려 겸비해졌다. 그분께서 기도를 그쳤을 때, 그들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눅 11:1) 하고 부르짖은 것은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이다”(보훈, 102~103).

“그대들은 많은 기도로써 영혼들을 위하여 활동해야 하는데, 오직 기도만이 사람들의 마음과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전도, 342).

“기도는 우리 사이를 연합시키는 동시에 하나님과 연합시킨다”(실물, 250).

전도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일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생활 속으로



생활양식을 바꿈으로 전도의 열매 맺기



시대의 변화와 전도 방식

사람과 사회가 끊임없이 변화하므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전도 방식도 달라져야 합니다.

코이노니아 생활전도를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코이노니아 생활전도의 핵심은 관계전도, 우정전도입니다. 나의 생활에서 이미 관계를 맺고 있는 소중한 사람이나 적어도 이미 알고 있던 지인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는 가운데 직접 복음을 전하거나 복음이 살아 있는 나의 생활 반경으로(집, 소그룹, 교회) 그들을 초청함으로써 복음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코이노니아 생활전도란, 간절한 기도로 성령의 능력에 전적으로 의지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다운 생활을 통해 자연스러운 열매 맺는 삶을 말합니다.

현대인의 생활양식과 그리스도인 생활양식의 정립

구체적인 복음 전도에 앞서 왜 생활양식을 말합니까?

첫째는 오늘날 비신자들이 하나님과 성경보다는 교인들의 생활 모습을 보고 우리 교회를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전도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바쁘고 분주해진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생활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편적인 복음 제시보다 복음의 전체성이 요청되는 21세기에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양식 정립이 불가피합니다.

더군다나 오늘날은 '중독성의 사회'입니다. 중독이란 불건전한 행동이 반복적으로 일어나 고질적인 습관이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현대인들은 대중문화의 6S(screen, sports, sex, speed, stress, success)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혹은 6S에 감염된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의 영성은 식어져 화석화되고 무기력해집니다.

21세기의 대중문화(6S)는 마약과도 같습니다. 당신의 삶에 깊숙이 침투한 6S가 있다면 어느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의 7가지 생활양식 실천하기

이제 자연스러운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7가지 생활양식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양식들을 당신의 삶 속에 적용시키면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회복되고, 자연스러운 전도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서로 다음과 같이 인사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 생활양식을 확 바꾸어 버립시다!”

1.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서 마감하는 영성 중심 생활양식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실천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복음의 핵심 가운데 삶의 방향을 잡음

2. 성령이 주도하는 단순한 생활양식

기도로 주님께 집중하는 단순한 삶

3. 영혼 구원을 최우선으로 하는 본업 중심 생활양식

성도의 본업은 본향인 하늘나라를 증거 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일

4. 모든 사람과 교제를 나누는 관계 중심 생활양식

하나님은 관계 속에서 사람이 살아가도록 창조하심

관계망은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이고 관계 형성이 전도의 열쇠

5. 한 사람이라도 나의 생명을 거는 생활양식

한 사람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그리스도인의 철학

예수님의 12제자에 대한 집중과 섬김

6. 작고 사소한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인격 중심 생활양식

작은 것에도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인격자

사소하지만 중요하게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

7. 소그룹을 통해 사람을 섬기는 사역 중심 생활양식

소그룹을 통해 사람을 변화시키고 키우는 일에 자신을 투자

소그룹 참여는 관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제 진지하게 그리고 서로 돕고 이끌어 주는 마음으로 다음의 ‘그리스도인 7가지 생활양식’에 그룹 차원의 공동서원을 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 7가지 생활양식 서약서

1.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해서 마감하는 영성 중심 생활을 하겠습니다.
2. 성령이 주도하는 단순한 생활을 하겠습니다.
3. 영혼 구원을 최우선으로 하는 본업 중심 생활을 하겠습니다.
4. 나의 소중한 사람들과 교제를 폭넓게 나누는 관계 중심 생활을 하겠습니다.
5. 선택과 집중의 차원에서 한 영혼이라도 생명을 거는 생명 중심 생활을 하겠습니다.
6. 작고 사소한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는 인격 중심 생활을 하겠습니다.
7. 소그룹을 통해 사람을 섬기는 사역 중심 생활을 하겠습니다.

본인은 상기 7가지 생활양식을 일상생활에서 적용할 것을 서약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 되어 일정 기간 서로 도우며 그 생활양식들이 체질화, 생활화되도록 서로를 격려하겠습니다.

년 월 일

이름 :	서명 :
증인 1 :	서명 :
증인 2 :	서명 :

단 12:3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취리라

* 증인 1은 반드시 소그룹 리더나 교역자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7가지 생활양식’ 서약서에 서명하셨습니까?

생활양식을 확 바꿔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한 당신의 실천적 계획을 다음에 적어 보십시오.

- ①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해서 마감하는 영성 중심 생활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를 할지 구체적 계획을 세우십시오.
- ② 성령이 주도하는 단순한 생활을 위해 내가 과감히 버려야 할 습관은?
- ③ 영혼 구원이라는 본업 중심 생활을 최우선적으로 살고자 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솔직히 생각해 보며 기도하고자 한다면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 ④ 나의 소중한 사람들과 교제를 넓게 나누는 관계 중심 생활을 위하여 내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모임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혹은 내가 더 적극적으로 사귀어야 할 사람은 누가 있는지?
- ⑤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한 영혼이라도 생명을 거는 생명 중심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지?
- ⑥ 작고 사소한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인격 중심 생활을 하고자 할 때 내가 특별히 신경 써서 노력할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예: 생일 챙겨 주기, 핸드폰 문자로 축복해 주기 등)
- ⑦ 소그룹을 통해 사람을 섬기는 사역 중심 생활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정말 나에게 있는지? 있다면 조금 더 개선해야 할 나의 소그룹 생활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 ① 복음 전도자의 삶은 성령의 능력을 끊임없이 간구하고, 내가 위하여 기도 하는 영혼을 변화시키시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놀랍고 은혜와 능력이 넘치는 삶입니다.
- ② 지금 배운 그리스도인 7가지 생활양식 중 당신에게 가장 개선이 필요한 한 가지를 뽑아 보시고 어떤 개선책이 필요한지 말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조언이 필요하면 구하십시오.

코이노니아 함께 찬미하기



다 같이 일어나 '불길 같은 성령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한 주 동안 이 곡으로 찬양하며 가사를 통하여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한 주를 살아갑시다.



기본곡 : 찬미가 180장 '불길 같은 성령님'

추천곡 : 1.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2.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3. 하나님의 음성을

4.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코이노니아 합심 기도회



- ① 우리 모두에게 가난한 심령을 주셔서 성령의 능력을 더 갈망할 수 있도록
- ②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짐으로 기도 중에 말씀하시는 세미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도록
- ③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따라감으로 나의 삶에 그리스도인 7가지 생활양식이 실천되며 약속하신 늦은 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미리 보기



- ① 한 주 동안 나의 소그룹원들의 그리스도인 7가지 생활양식 실천을 위하여 서로 체크해 주고 포기하지 않도록 기도로 연합합시다.
- ② 5단계 '나의 삶이 복음입니다'의 기억절 빌 1:27을 전도수첩에 있는 말씀 암송표를 활용하여 암송하십시오.

기억절

빌 1:27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다시 한번 기대되는 코이노니아 생활전도 훈련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이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되어 우리가 맺고 있는 소중한 관계의 사람들을 정말 축복해 주고자 하는 마음이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십시오.

'하늘에서 만날 당신 미리 만나 반갑습니다.'

'당신은 나의 오이코스입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오이코스의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오늘은 5단계 훈련으로 '나의 삶이 곧 복음'임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코이노니아 퀴즈



자연스러운 웃음과 억지웃음이 인체에 미치는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요?

- ① 자연스러운 웃음만 건강에 유익하다.
- ② 억지웃음보다 자연스러운 웃음이 조금 더 건강에 유익하다.
- ③ 억지웃음이나 자연스러운 웃음이나 동일한 효과가 있다.

매일 _____ 더 웃으면 이들을 더 살 수 있다(미국 인디애나 메모리얼 병원).

- ① 15초 ② 30초 ③ 1분 ④ 2분 ⑤ 5분

호쾌한 웃음은 에어로빅 _____ 의 효과이다.

- ① 1분 ② 5분 ③ 10분 ④ 20분 ⑤ 30분

기억해 봅시다 

- ① 지난 한 주 동안 아침마다 '성령과 기도에 집중하기'의 기억절인 요 15:26을 떠올리며 기상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요 15:26을 암송해 보십시오.

- ② 한 주 동안 나의 관계망을 보다 튼튼히 하고 확장하기 위해 그리스도인 7가지 생활양식 중 가장 힘쓴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서로 나누어 봅시다.

- ③ 한 주 동안 나의 소그룹원들의 그리스도인 7가지 생활양식 실천을 위하여 도움을 주신 일이 있으십니까? 기억하실 것은 우리가 혼자 그리스도인 7생활양식 실천을 하고자 하면 쉽지 않지만 공동체와 더불어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함께한다면, 능히 해낼 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 ① 내 경험과 지식과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변화시켜주신 나의 삶으로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 ② 오늘 훈련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삶의 생활 영성이 무엇인지 명확히 파악하게 하시고, 나의 삶 속에 부족한 점들이 생각나게 하셔서 부족한 부분이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채워짐으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기를

말씀 속으로



1. 나 자신이 먼저 '좋은 소식'이 되어야 합니다.

'전도하라'고 하기 전에 복음 전도인으로서 합당한 인격과 삶을 갖추고 모든 신자와 깊은 유대관계를 유지할 뿐 아니라 관계 발전을 위해 힘쓰고 이것을 위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만 할 것입니다.

당신 자신이 좋은 소식이 되기 위해 당신이 우선적으로 갖추어야 할 덕목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마 5:16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날 교인들은 우리 집에 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이 비신자들에게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인격과 삶은 항상 주변 비신자들의 주목을 받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 전도를 위하여 말과 행동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비신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 가장 실망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기를 희생하고 이웃에 유익을 끼치려는 예수님의 삶의 철학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말이나 논리나 전도 기술로는 진정한 전도가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전도의 능력은 진정한 이웃 사랑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목사의 설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의 생애를 믿는다”(선교, 26).

당신의 인격과 삶 때문에 비신자들로부터 칭찬을 받았거나 구설수에 오른 적이 없었습니까? 조용히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변화된 인격과 삶은 구체적인 헌신을 동반합니다.

요일 3:18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전적으로 변화된 인격과 삶은 구체적인 헌신이 수반됩니다. 특히 영혼을 섬기는 복음 전도를 위해서는 3가지, 즉 시간, 재능(은사), 물질의 헌신이 요구됩니다. 이 3가지는 나의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나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초대 교회에서 성도가 된다는 것은 끊임없이 형제들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주변에 모여드는 나그네, 전도자, 가난한 자, 박해받는 자 등 방문객들을 접대해야 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이웃을 위해 기꺼이 내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웃을 위해 존재하는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3. 모든 그리스도인은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나의 소유가 아닌 주인의 것을 신중하게 관리할 책임을 부여받은 자입니다. 주인의 소유를 허비하는 불의한 청지기(눅 16:1)가 되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을 위해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기꺼이 내드리는 진정한 청지기가 됩시다.

서로의 삶 나누기

헌신 수치 작업표

한 항목당 5를 최대치로 1부터 5의 수를 매긴 후 총계를 내보십시오.

시간

1. 내게 주어진 시간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하나님의 시간임을 믿는다.
2. 내게 주어진 시간의 최우선 순위를 나의 오이코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에 두어야 한다.
3. 내게 주어진 일주일의 168시간 중에서 십일조에 해당하는 16~17시간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나의 오이코스를 구원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다.

	1	2	3	4	5
1번 문항					
2번 문항					
3번 문항					

재능(은사)

4. 나의 모든 재능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선물임을 나는 믿는다.
5. 나의 재능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6.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나의 재능을 그분께 드릴 준비가 되어 있다.
7. 나의 오이코스를 위해 나에게 주신 재능을 온전히 사용하겠다.

	1	2	3	4	5
4번 문항					
5번 문항					
6번 문항					
7번 문항					

물질

8. 나의 모든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선물임을 믿는다.
9. 나는 나에게 주어진 물질을 임시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기꺼이 바칠 준비가 되어 있다.
10. 나의 오이코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의 물질을 기쁘게 사용하겠다.

	1	2	3	4	5
8번 문항					
9번 문항					
10번 문항					

나의 헌신 수치(/50)

합계 수치	45점 이상	44~40점	39점 이하
헌신 정도	매우 헌신적임	헌신적임	더 많은 헌신이 요구됨

위 표의 각 항목을 합한 당신의 헌신 수치 점수는 몇 점입니까?

당신은 영혼 구원 사역을 위해 당신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최우선적으로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업을 회복한 사람답게 헌신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고 계획하는 작업을 하십시오.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을 받고자 갈망하게 될 것이다. 그를 위하여 하늘이 이루어 준 일을 명상할 때 그의 마음은 무한한 사랑과 경이로운 감사의 마음으로 감동을 받는다. 그는 자기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업에 다 바쳐 헌신함으로 감사의 마음을 나타내고자 열망하게 된다. 그는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사신 소유물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고자 갈망한다. 그는 수고하고 어려움을 겪고 희생한다”(치료봉사, 463).

“참된 성결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다. 이것은 참된 그리스도인 생애를 살아가는 데 필요 불가결한 조건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전적인 헌신과 온전한 봉사를 요구하신다. 그분은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기를 요구하신다. 자아를 소중하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실물교훈, 48~49 영문).



관계를 발전시키는 신바람 대화법(7가지 관계발전 대화법)

마 7:12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위의 말씀은 인간관계의 황금률입니다. 대화할 때에도 이 말씀을 항상 염두에 두고 대화합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대화입니다. 대화의 창이 열리면 친밀한 관계가 회복됩니다.

대화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나누고 싶은 주제를 가지고 공감하며, 상대방의 이야기에 맞장구를 치며 친밀한 관계를 맺어나가는 것입니다.

“대화는 인간의 의사소통 중 가장 기본입니다.”

“대화의 창이 열리면 마음이 열립니다.”

대화의 내용보다 대화 방법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대화할 때 그 내용보다는 말투나 표정 때문에 서로 불편해지거나 갈등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대화 습관, 스타일, 말투, 시선, 억양, 표정들을 전면적으로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 봅시다.

신바람 대화법 – 관계발전 대화법 7가지를 먼저 잘 파악하십시오.

1. 1초 먼저 인사하라.
2. 멋진 표현과 질문을 하라.
3. 상대방의 장점을 주제로 이야기하라.
4. 인정하고 칭찬해 주라.
5.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하라.
6. 때때로 맞장구를 치며 공감하는 대화를 하라.
7. 현대인의 위로자가 되라.

“타인의 멋진 장점을 칭찬한 후 끝까지 경청하고, 때때로 맞장구치면서 위로하라.”



① 1초 먼저 인사하라

인사는 자신을 알리는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인간관계의 첫걸음은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먼저 인사하고 말을 건네며 교제를 시작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적극적인 행동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낯선 사람에게 인사하며 존경과 친근감으로 먼저 말을 건네는 것, 이것이 참된 기독교의 영성이며 진정한 용기입니다. 가벼운 인사 한마디가 대화의 문을 활짝 열어 줍니다.

인사의 의미

- (a) 인간관계의 첫걸음
- (b) 존경과 친근감의 표현
- (c) 자신을 알리는 적극적 표현

5대 기본인사

- (a) 안녕하십니까?
- (b) 만나서 반갑습니다.
- (c)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 (d) 고맙습니다.
- (e) 또 뵙겠습니다.

힘이 되는 파워 인사

- (a) 요즘 너무 멋져 보여요.
- (b) 당신이 최고입니다.
- (c) 제가 도와드릴게요.
- (d) 우리 같이해요.
- (e)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 (f) 당신이 없으면 안 돼요.

인사와 대화 중 시선을 많이 마주치라.

시선을 많이 마주치는 사람은 좀 더 적극적이고, 호감이 가고, 다정하고, 자신감이 있고, 성실하고, 성숙해 보입니다. 하지만 시선을 잘 마주치지 않는 사람은 냉정하고, 비판적이고, 공격적이고, 비성숙한 것처럼 보입니다.

나는 내가 먼저 인사하는 스타일입니까?

② 멋진 표현과 질문을 하라

좋은 표현과 질문이 좋은 대화의 비결입니다. 질문은 친근감의 표시입니다. 굳이 말을 안 해도 통한다는 이심전심의 문화는 더 이상 우리 시대의 미덕이 아닙니다.

‘닫힌 질문’이 아니라 ‘열린 질문’으로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좋지 않은 인사

- ‘어떻게 지내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 ‘건강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신경 좀 써야겠네요.’
- ‘살이 많이 찌셨는데 다이어트 좀 해야겠어요.’

좋은 인사

- 보다 구체적이고도 유쾌한 소식을 주제로 질문하면서 대화의 문을 활짝 여십시오.
- ‘이번에 큰아드님이 좋은 회사에 취직했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어떤 회사입니까?’
- ‘건강이 아주 좋아 보이는데 어떻게 건강관리 하세요?’

'나' 전달법과 '너' 전달법

'나' 전달법은 나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상대방의 이해를 구하는 대화법입니다. '너' 전달법은 상대방의 과실을 지적하면서 반성할 것을 촉구하는 대화법입니다. '나' 전달법으로 대화하는 습관을 가집시다.

내가 자주 쓰는 멋진 표현과 질문은 무엇입니까?

③ 상대방의 장점을 주제로 이야기하라

약점이 아닌 장점을 주제로 이야기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약점은 기도 제목으로 남겨 두십시오.

약점은 금방 눈에 띄는데 장점은 좀처럼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을 항상 유념하십시오.

기도하면서 깊이 생각하면 장점이 서서히 보입니다.

장점이 발견되면 그 주제로 즐겁게 열린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상대방의 장점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는 것은 대화의 에티켓입니다.

나는 상대방의 약점과 장점 중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④ 인정하고 칭찬해 주라

인간관계 전문가인 테일 카네기의 인간관계 기술을 요약하면 '진심으로 남을 인정하고 칭찬하라'는 것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칭찬은 '긍정적인 자기 이미지'를 심어 주는 것입니다.

'자기 이미지'는 스스로 생기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에 따라 형성됩니다.

칭찬은 건강한 '자기 이미지'를 가지게 합니다.

상대방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보고 칭찬해 주십시오.

사람들을 진심으로 존귀하게 여기는 안목과 그 존귀함을 표현하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예수님께 서도 창기와 세리, 병든 자와 장애인, 어느 한 사람 존귀히 여기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서로 인사하십시오. "서로 칭찬하며 삽시다."

⑤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하라

조급한 현대인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못합니다. 더욱이 두서없이 이야기를 하면 중간에서 대화를 끊어 버립니다. 이러한 행동은 상대방에게 불쾌감과 큰 좌절감을 심어 줄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하면 상대방은 나에게 신뢰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마음과 정서가 통하는 '심정 대화'는 깊이 경청하는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심정으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신실하게 경청합니다.

⑥ '맞습니다.'라고 때때로 맞장구를 치며 공감하는 대화를 하라

'맞습니다.'라고 일단 상대방의 이야기를 긍정적인 입장에서 받아들여 맞장구를 쳐 주는 것은 대화의 기술상 매우 효율적입니다. '맞습니다.'라고 대화를 이어 가는 것은, 공통점을 발견하고 거기서부터 공감하는 대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공통점은 동질감을 느끼게 해 주고 친밀감을 더해 줍니다. 때론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상대방의 눈을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만으로도 공감하는 대화를 이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공감할 수 없을 때에는 미소로 침묵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감하는 대화

- ① 긍정적인 마음가짐
- ② 섬기는 마음가짐
- ③ 기대하는 마음가짐
- ④ 격려와 지지

위의 4가지 열린 마음가짐으로 공감하는 대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⑦ 현대인의 위로자가 되라

사 40:1 너희 하나님은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현대사회는 염려하는 사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대인의 화려한 생활 이면에서 들려오는 그들의 애절한 부르짖음을 들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진정으로 생각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울고 싶을 때 나와 함께 있어 줄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붙들어 주고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 헨리 나우웬

구약에서 메시아에 대한 많은 예언 중 사 61:1~3에서는 슬픈 자의 위로자인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인생의 고난을 가까이 감당하시면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장애인, 소외된 사람을 필두로 세상의 모든 사람을 섬겼습니다.

주님처럼 자신이 먼저 한 알의 썩어지는 밀알이(요 12:24) 될 수 있는 사람만이 현대인의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현대인의 위로자가 되기 위해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들의 모든 언행은 죄인을 구원하는 큰 힘을 가진 그분의 이름에 관심을 집중시키는 그런 것이 되어야 했다”(행적, 28).

위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신바람 대화법 7가지 중에서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하고 연습해야 할 대화법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 ① 나 자신이 먼저 성령께 감동함을 받은 사람이 되고, 나의 삶이 복음(복된 소식)이 되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청지기의 역할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 ② 나의 행동과 대화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상대방을 이해하고 경청하는 대화를 통하여 나의 오이코스(마음)를 여는, 예수님을 닮은 품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 ③ 탁월한 관계 전문가가 되기 위해 관계발전을 위한 7가지 신바람 대화법을 매일 한 번씩 암기해 봅시다. 첫 번째 방법인 ‘1초 먼저 인사하기’를 매일 적극적으로 실천하며 어떤 반응들이 나타나는지 예의 주시하면서 담대하게 실천해 봅시다.

코이노니아 함께 찬미하기



다 같이 일어나 '너의 허를 길들이어'를 부릅시다.

그리고 한 주 동안 이 곡으로 찬양하며 가사를 통하여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한 주를 살아갑시다.



기본곡 : 찬미가 593장 '너의 허를 길들이어'

추천곡 : 1. 주는 나의 행복

2.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3. 내게 있는 향유 옥합

4.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코이노니아 합심 기도회



- ① 나 자신이 먼저 성령께 감동함을 받은 사람이 됨으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청지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 ② 나의 삶과 행동과 대화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닮은 사랑스러운 품성을 소유하며, 나의 오이코스들과 아름다운 대화를 통하여 더 친밀한 관계를 맺어 가게 되기를

미리 보기



- ① 한 주일 동안 나의 오이코스들을 만나서 관계를 발전시키는 신바람 대화법에 맞게 실습하시되 가장 먼저 가정에서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의 대화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 ② 6단계 '오이코스를 품으라'의 기억절 잠 27:23을 전도수첩에 있는 말씀 암송표를 활용하여 암송하십시오.

오이코스를 품으라

기억절

잠 27:23 네 양 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네 소 떼에 마음을 두라

‘좋은 나무’ 차원을 마치고 ‘좋은 열매’ 차원에 들어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3월의 봄바람과 봄비가 4월의 꽃을 피우듯이 불타는 사명과 분명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양식이 복음 전도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뿌리가 건강하고 땅 밑의 유기물이 충분하고 적절한 햇볕이 있으면 나무가 자라 좋은 열매를 맺게 마련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면서 6단계 훈련을 시작합니다.



인사하기

‘좋은 열매를 맺읍시다.’

우리의 관심이 되는 오이코스를 향하여 하나님의 심정을 품으며 실제적인 삶 가운데 그들을 깊이 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코이노니아 연습



- 1 탁월한 관계 전문가가 되기 위해 관계발전을 위한 7가지 신바람 대화법을 연습법에 따라 암기해 보겠습니다.

“타인의 멋진 장점을 칭찬한 후 끝까지 경청하고, 때때로 맞장구치면서 위로하라!”



연상법에 따라 암기해 보십시오. 그래야 신바람 대화법을 체질화할 수 있습니다. 다 함께 눈을 감고 암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잘 안 떠오르면 다음에 따라 괄호에 넣어 보십시오.

첫 번째, “타인의 멋진 장점을 ()한 후 끝까지 ()하고, 때때로 맞장구치면서 ()하라!”

그래도 잘 모르겠습니까? 다시 한번 괄호를 채워 보십시오.

“타인의 멋진 ()을 ()한 후 끝까지 ()하고, 때때로 ()치면서 ()하라!”

자 한 번의 기회를 더 드리겠습니다. 역시 빈칸을 채우십시오.

“()의 멋진 ()을 ()한 후 끝까지 ()하고, 때때로 ()치면서 ()하라!”

필요하다면 이제 옆 사람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이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한 번 외워 보십시오.

② 조금 전 외운 문장의 각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차근차근 말해 보십시오.

③ 당신의 대화 습관 중 가장 고쳤으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나누어 보십시오.

기억해 봅시다



- ① 5단계 훈련 ‘나의 삶이 복음입니다’의 기억절은 빌 1:27이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자주 떠올려 보시고 암송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암송해 보십시오.
- ② 지난 한 주일 동안 관계를 발전시키는 신바람 대화법에 맞게 대화하는 연습을 해 보셨습니까? 상대방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 ③ 지난 한 주일 동안 하나님께 헌신된 청지기가 되기 위하여 나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을 간구하셨습니까?
- ④ 이번 과의 기억절 잠 27:23의 말씀을 다 같이 암송해 봅시다.

코이노니아 합심 기도회



- ① 우리는 세속화의 급물살 속에서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우리의 관심이 되는 오이코스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우리의 약한 심령과 의지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데 늘 문제가 되곤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올려 드리며 다시 한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강하고 새롭게 해 주실 것을 구하도록 합시다.
- ② 계속되는 실천적인 훈련의 과정 속에서 마음과 실제적 행동이 따르지 않

으면 이 모든 훈련은 시간 낭비에 불과할 것입니다. 다소 힘이 들고 마음에 들지 않는 요소가 있더라도, 우리를 구원하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과 100여 년 전 영적 흑암의 조선 땅에 온갖 고난을 무릅쓰고 와서 복음을 전파한 선교사들의 심정을 갖고 훈련 과정에 몰입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라. 그가 그대를 위해 당하신 것을 생각하고 침묵하라. 비록 매를 맞고 거짓 고소를 당하더라도 불평하지 말라. 싫은 소리를 내지 말고, 비난이나 불평의 생각이 마음에 들지 않게 하라. 바른길을 택하라”(6증언, 120).

말씀 속으로



1. 목자 없이 헤매는 어린양

시편 23편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아름다운 시입니다.

다 같이 성경을 펴고 시편 23편을 한마음, 한목소리로 읽어 봅시다.

아래의 시는 시편 23편을 패러디하여 다이아나 그린이라는 시인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을 노래한 시입니다.

우리 모두 목자의 심정을 갖고 다시 한번 한마음, 한목소리로 읽어 봅시다.

나는 목자 없이 헤매고 있어요

내 영혼 피곤하고 목이 말라 있어도

아무도 나를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지 않아요

나는 길을 잃어 갈 바를 모르는데 누가 나를 소생의 길로 인도해 줄 수 있을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상하고 찢려 있어도
 나를 위해 상을 베푸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다만 헤치려는 원수들로 에워싸여 있어요
 아무도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 주지 않고 내 잔은 홀로 비어 있어요
 내 평생은 실망과 기만으로 가득 차 있을 뿐 내게는 돌아갈 본향도 없어요
 나는 언제까지 이 질고의 집에서 살아야만 할까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을 모르는 오이코스들의 얼굴 표정과 삶을 접할 때,
 거친 인생 광야에서 목자 없이 헤매고 있는 그들의 말 없는 절규와 탄식 그리고
 목자를 찾는 연약한 갈망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 ① 이 시간에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나에게 가장 선하고 능력이 크신 목자가 계셨음에도 마치 목자 없이 사는 삶
 을 살아온 때가 적지 않았음을 발견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 ② 한번 더 용서를 구합니다.
 선한 목자 없이 사는 삶의 어려움을 보면서도 우리의 소중한 오이코스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부족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
 의 관점과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 그저 내게 필요한 것들에 집착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해 온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합니다.
- ③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나의 오이코스들을 진심으로 마음에 품고 내가 저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쓰
 임 받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나에게 맡겨진 오이코스들을 향해 목자의 심
 정으로 나아가 저들을 생명 되신 예수님께로 이끌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합
 시다.

④ 우리 각자는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뭉쳐서 힘을 합치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 함께 우리의 오이코스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전4:12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마18:20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2. 화평케 하는 자

마 5:9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세상의 역사는 전쟁과 침략으로 가득 차 있고 매일의 뉴스는 범죄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줍니다.

왜 우리는 전쟁과 범죄의 세상에 살아야 할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죄가 문제인 것입니다. 개인들이나 나라들 사이의 모든 인간의 문제는 욕욕과 탐욕과 이기심과 자기중심적인 죄악의 본질입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크고 강하다면 자신의 온 힘을 다해 다른 사람이 어떠한 피해를 보든,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기심과 투쟁과 탐욕이 가득 찬 우리 세상에서 목자 없이 방황하고 지친 어린양들을 구원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화평케 하는 정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화평케 하는 정신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빌 2:5~8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죄가 깨뜨린 화평을 이 땅과 하늘에 회복시키는 것이 그분의 사명이다”(보훈, 27).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화평케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화평케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은 그분의 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죄로 인하여 깨어진 하늘과 이 땅의 화평을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다시 회복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닮은 우리로 인하여 이 세상에 평화가 넘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평화의 기별을 가지고 세상으로 보내진다. 자신도 몰래 조용히 거룩한 생애의 감화를 끼치는 자는 누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낼 것이다. 언행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버리고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게 하는 자는 누구나 화평케 하는 자이다”(보훈, 28).

3. 한 알의 밀알

내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려면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먼저 한 알의 밀알이 되어야 합니다.

요 12: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작은 밀알 하나가 온 세상을 바꿉니다. 밀알 하나가 죽음으로 수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로 썩어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전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알의 밀알로 헌신하면 우리 주위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시간 내가 땅속에 묻혀 나를 희생하는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마 13:8)의 열매가 맺히기를 헌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래의 헌신문을 읽고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한 알의 밀알’ 헌신문

본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 주신 오이코스들이 모든 것을 희생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나의 삶을 통하여 영생에 이를 때까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그들을 섬길 것을 결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합니다.

20 년 월 일

이름 서명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전 15:31)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
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 2:20)

생활 속으로



1. 오이코스 동심원 그려 보기

오이코스 동심원이란?

나를 중심으로 한 관계의 네트워크를 그림으로 그려 보는 것입니다.

나의 영향권, 즉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종종 오랜 세월 재림성도로 살아왔어도 구원해야 할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을 오래한 성도들일수록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의 범위가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축소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이코스 동심원을 통하여 이전까지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던 사람들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나의 삶에 있어서의 관계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관계망 안에 있는 비신자 오이코스들, 즉 우리 가족과 친지, 친구는 물론 평소에 알고 지내는 이웃, 직장 동료, 고객, 거래처의 사람들, 동아리나 동교회 회원 가운데 비신자와 낙심자, 교회의 장기 결석자를 면밀하게 살펴본 후 그들의 이름을 모두 적어 봅시다.

“모든 사람이 다 외국에 선교사로 갈 수는 없으나 모든 사람이 그들의 가정과 이웃들에게 선교사가 될 수 있다”(가정, 485).

원-1, 나 자신



나 자신이 먼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이 우선임을 잊지 마십시오, 따라서 나의 기도수첩에 내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고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원-2, 직계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당신의 직계가족은 당신과 한 지붕 아래 사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지금 자신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사랑의 통로가 되지 못하고 내 관계의 세상을 벗어난 저 먼 땅끝에 관심을 기울인다면 당신의 전도는 순서가 잘못되었습니다. 내가 구원해야 할 첫 번째 대상은 가족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3, 친척



당신의 친척은 모두 몇 명이나 되십니까? 그들의 이름을 한 명씩 적어 나가기 시작하면 아마도 그들을 향한 나의 무관심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과 피를 나눈 혹은 당신의 배우자와 피를 나눈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 때문에 나의 관계의 세상에 들어올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원-4, 친구



원-4에서는 당신과 가장 가깝게 연관된, 당신이 터놓고 자연스럽게 비밀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 당신의 삶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 그리고 때론 내가 절실한 도움이 필요해서 한밤중에 전화를 걸어도 만사를 제치고 달려올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관계는 서로에게 자연스럽게 끌리며, 대부분의 것에 동의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서로의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가까운 친구가 아니라면 원-5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원-5, 이웃/동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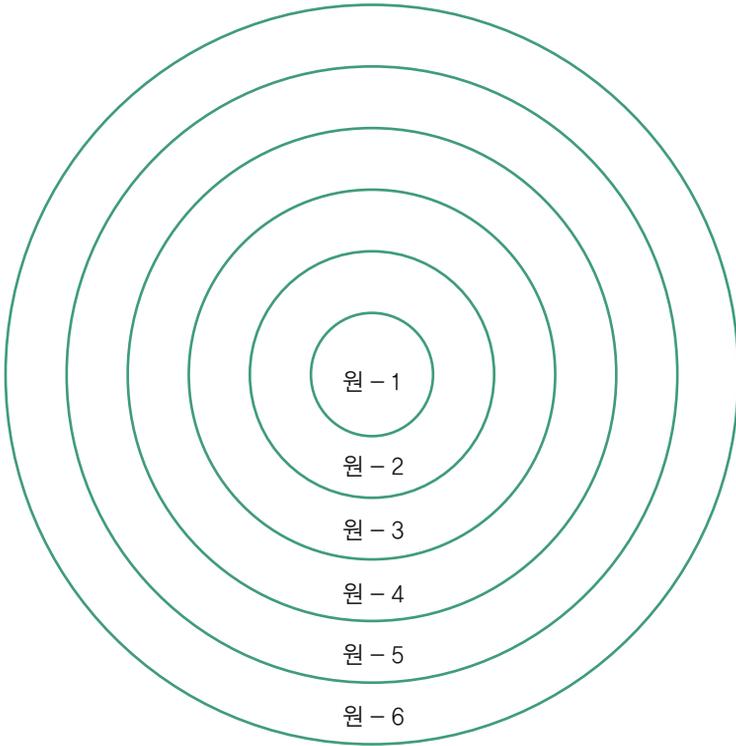


원-5에는 이웃, 동료 그리고 가깝지 않은 사업상의 친구들이나 겉으로만 유대관계를 가진 사회적 친구들이 포함됩니다.

원-6, 아는 지인



원-6은 당신이 얼굴은 알지만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내가 자주 가는 마켓이나 식당의 직원이나 미용실 원장, 내 아이의 학원 선생님 등 때때로 나의 삶 속에서 마주치지만 인사 정도만 하고 지나치는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들도 나의 삶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이들에게도 구원의 복음이 전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이름을 알아보고, 계속해서 이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십시오. 이들과 관계를 쌓아 가는 동안 이들의 필요를 채울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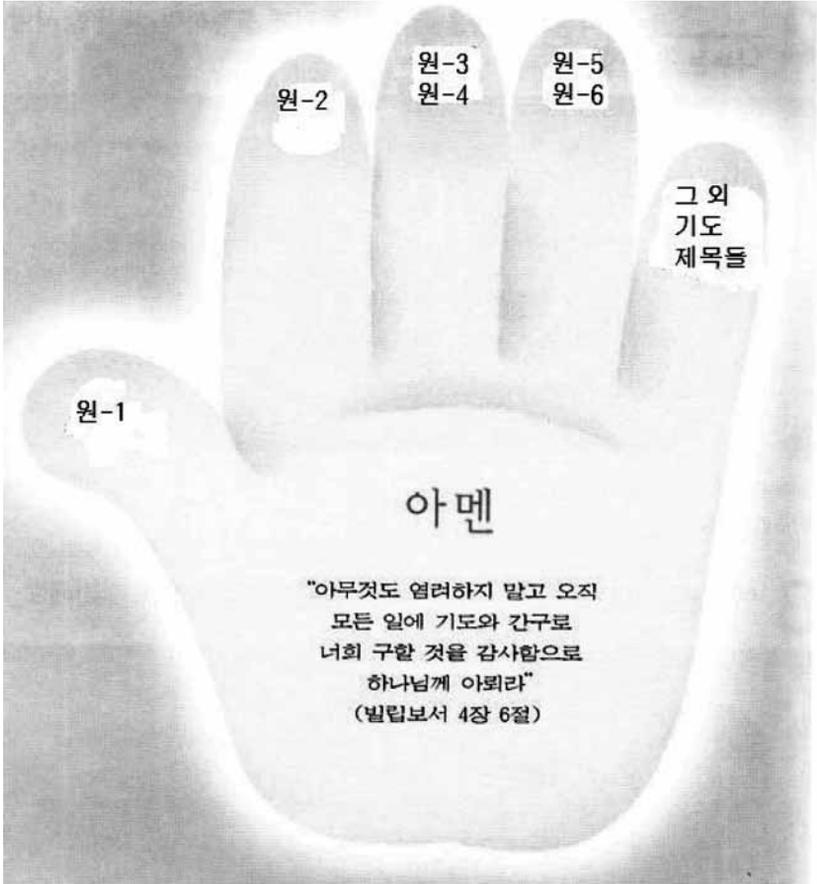
2. 다섯 손가락 기도하기

오이코스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다섯 손가락을 사용하여 원-1에서 원-6까지 차례대로 기도하는 습관을 키우도록 하십시오. 먼저 엄지손가락을 펴면서 나와 원-1을 위해 기도를 시작하시고, 다음은 검지 손가락을 펴면서 원-2를 위해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같은 요령으로 오이코스 동심원을 넓혀 가며 기도하면 됩니다.

① 엄지손가락 : 원-1

② 검지손가락 : 원-2

- ③ 중지손가락 : 원-3, 원-4
- ④ 약지손가락 : 원-5, 원-6
- ⑤ 새끼손가락 : 그 외 기도 제목들



위의 오이코스 동심원에서 긴급성과 중요성의 면에서 가장 우선적 전도 대상이 누구인지 한 명 선정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또한 다음 주 중에 기도한 사람을 위하여 사랑과 관심의 대화를 나누거나 통신 수단으로 나누어 보십시오.

“그대 주변에는 재난을 당한 자, 동정과 사랑과 친절의 말 또한 우리의 겸손하고 불쌍히 여기는 기도가 필요한 이들이 널려 있다”(3중언, 530).

3. 나의 전도(기도) 동역자 찾기

고전 3:9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우리가 서로 동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사역을 수행할 때 협력해서 함께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70인 전도에서 2명씩 짝지어 보내셨습니다(눅 10:1).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의 최전방 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 전도 사역에서는 성도가 서로 맞드는 협력관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의 지상명령을 함께 수행할 동역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비전을 함께 나눌 수 있고 그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만 해도 행복한 일인 것입니다.

당신의 오이코스 관계망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나 교우들 가운데 오이코스 전도를 위해 함께 동역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이 믿음으로 연합 기도를 하늘로 올리고 있는 동안 응답이 이르렀다”(행적, 68).

벧전 4:10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오이코스 동역자들이 가장 많이 논의해야 하는 것이 기도 중에 떠오르는 전도 전략입니다. 지금 코이노니아 생활전도 훈련학교의 내가 속한 소그룹 내에서 전도(기도) 동역자를 찾고, 함께 자신의 오이코스들의 이름과 그들의 영적 상태와 형편과 처지에 맞게 구체적인 전도 전략을 나누고 그들의 이름과 나는 이야기들을 기도수첩에 적어 넣읍시다.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 ① 죽기까지 복종하신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 땅속에 묻힌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목자 없이 방황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오이코스들을 예수님과 연결하는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 ② 내 삶의 관계 동심원 안에 있는 오이코스들을 위하여 기도하되, 적어도 다섯 손가락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매일 손가락을 꼽으며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결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 ③ 나의 전도(기도) 동역자와 함께 합심하여 선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서로에게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코이노니아 함께 찬미하기



다 같이 일어나 '너는 너무 큰일만을'을 부릅시다.

그리고 한 주 동안 이 곡으로 찬양하며 가사를 통하여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한 주를 살아갑시다.



기본곡 : 찬미가 226장 '너는 너무 큰일만을'

추천곡 : 1. 우리 함께 기도해

2.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3.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4.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코이노니아 합심 기도회



- 1 내가 작성한 '한 알의 밀알 헌신문'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 2 나의 오이코스 동심원 안에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 3 나의 전도(기도) 동역자의 오이코스들을 위하여

미리 보기



- 1 일주일 동안 매일 아침 다섯 손가락 기도하기를 훈련하십시오.
- 2 7단계 '오이코스과 친해지라'의 기억절 고후 5:18을 전도수첩에 있는 말씀 암송표를 활용하여 암송하십시오.

오이코스과 친해지라

기억절

고후 5:18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우리는 지난 시간 소중한 오이코스들을 우리 마음에 품고 기도하기로 작정 하였습니다. 마치 한 가족이 아이를 입양하려고 마음먹듯이, 또 소중한 아기를 임신하듯이 우리는 내가 책임지고 구원하여야 할 오이코스를 작정하였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들을 품었으니,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들을 거둬나 게 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가장 큰 가능성과 영향력은 그들을 품은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을 섬기며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이코스과 친해지는 법에 대해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오이코스과 친해집니다.”

코이노니아 퀴즈&게임



아메리카의 한 인디언 부족에서는 어떠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을 가운데 앉혀 놓고 부족의 모든 사람이 모여 앉아 그 사람과 연관된 경험들을 말하면서 그 사람을 ()한다. 모든 사람이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때까지 며칠이라도 시

간을 보내고 마지막에 부족 전체가 잔치를 해서 모임을 마친다고 합니다.

- ① 조언 ② 꾸중 ③ 칭찬 ④ 권면



나누어 드린 개인별 쪽지에 소그룹 멤버들이 돌아가면서 각 사람의 칭찬할 장점을 한 문장으로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소그룹 멤버들이 적어 준 칭찬 내용 중 가장 마음에 드는 한 가지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1. 가장 마음에 드는 문장을 선택한 후 동글게 서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정성을 다해 손을 잡고 선택한 문장으로 칭찬하십시오.
2. 한 사람을 향하여 전 소그룹 멤버들이 평소 목소리의 4~5배로 정성을 다해 그 문장을 외쳐 주시기 바랍니다.
3. 마지막으로 멤버들을 서로 따스하게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해 봅시다



- ① 오이코스 동심원에 적합한 내가 품어야 하는 오이코스들을 위하여 지난 한 주일 동안 얼마나 기도하셨나요? 또한 내가 기도한 그들과 관계를 더 깊이 맺고자 지난 주간에 당신은 어떤 시도를 해 보셨습니까?
- ② 나의 전도(기도) 동역자와 서로의 오이코스에 대하여 그리고 그들을 복음으로 인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셨습니까? 그렇다면 지난 한 주일 동안 그들을 위하여 어떤 시도를 해 보셨습니까?

코이노니아 합심 기도회



- ① 우리는 몇 명의 오이코스를 마음에 품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보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작정과 결심이 쉽게 잊혀져서 관심이 가지 않거나 관심을 갖는다 해도 실제로 실행하는 데 많은 장애와 한계가 있음을 느낍니다. 이 점에 대해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고, 정말 진실함과 진지함으로 오이코스 구도자들을 품게 하시고 효과적으로, 실천적으로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오이코스 구도자와 친해질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이 생각나기를 기도합니다.
- ② 오늘 배울 과정에 성령의 지혜가 함께하셔서 모든 교육과정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는 용기를 허락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속으로



인간관계를 들여다보면 그 안에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통해 전염병도 나쁜 소식도 퍼지지만 복음도 퍼져 갑니다.

전도의 열쇠는 인간관계입니다.

복음은 인간 관계망과 사회 조직망을 통해 전달됩니다.

복음 전도의 인간관계는 철도의 선로와 같습니다.

오이코스와 관계가 파괴되면 사랑과 호의가 전달되지 못함은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평소에 주변의 오이코스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가꾸어 나가기 위해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경위를 통해 교회에 나오게 되는가?

친척이나 친구 등 인간관계를 통해	86%
교회 복음 전도 프로그램을 통해	6%
목회자 때문에	6%
광고를 보고	2%

1. 예수님의 모본

① 죄인들의 친구

예수님의 별명은 '죄인들의 친구'였습니다(마 11:19).

“예수께서는 그들의 곤고함을 익히 아시는 분으로서 사람들을 그들의 처지에서 만나셨다. 예수께서는 진리를 가장 직접적이고도 단순한 방법으로 제시하심으로써 그 진리를 아름답게 하셨다. 그의 언어는 깨끗하고 세련되어 있었으며 흐르는 물처럼 맑았다. 랍비들의 단조로운 어조의 말을 들어 왔던 자들에게 예수의 음성은 마치 음악과 같이 들렸다. 그분의 가르침은 단순했지만 그는 권세 있는 자와 같이 말씀하셨다. 이 특징이 예수의 가르침을 모든 다른 사람의 가르침과 대조되게 하였다. ...이는 그가 가장 매력적인 방법으로 진리의 보화를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그의 입술에 은혜가 부여된 때문이었다”(소망, 253).

과거에 새 신자들에게 성결한 삶을 위해 비신자들과의 친분관계를 끊고 신자들과만 교제해야 한다고 가르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옳은 가르침은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동시에 비신자들과의 교제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리, 죄인, 창녀들과 교제하셨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당신의 비교인과의 친분관계는 어떻습니까?

② 사람들의 아픔과 필요를 돌아보시는 예수님

“오직 그리스도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만 사람들과 접촉할 때 참성공을 거둘 것이다. 구주께서는 사람들의 유익을 소원하는 분으로서 그들과 섞이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에 대한 당신의 동정심을 보여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 봉사하시고, 그들의 신임을 얻으셨다. 그 후에 그분께서는 ‘나를 따라오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다”(선교, 119).

“그리스도의 종들은 그의 모본을 따라야 한다. 그분은 각처로 두루 다니시며 고생하는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 주셨다. 그 후에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큰 진리를 그들에게 소개하셨다. 이 일은 바로 그를 따르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이다”(실물교훈, 233~234(영문)).

“그리스도의 자녀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그의 모본을 따라야 한다. 그대의 이웃의 물질적 궁핍을 덜어 주라. 그리하면 그들의 감사한 마음으로 장벽은 무너지고 그들의 마음에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일을 신중히 생각하라”(선교, 132~133).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그리스도인의 생활양식입니다.

그분은 사람들의 아픔과 필요를 돌아보시기 위하여 먼저 그들과 섞이셨고, 그들에게 동정심을 보여 주시고, 위로하시고, 그들의 필요에 따라 봉사하셨습니다.

또한 사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 주신 여러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들을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신 일들을 다 기록했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요 21:25)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사건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면,

나인 성 과부에게서 죽은 아들이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를 이해하시고 그 아들을 살려 주셨습니다(눅 7:11~18).

결혼에 실패하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사마리아 여인의 삶의 공허를 보셨습니다(요 4:16~18).

세상의 권력이나 부로 채워지지 않는 삭개오의 가슴에 뚫린 큰 구멍을 보셨습니다(눅19:1~10).

십자가에 달린 최후의 순간에 나무에 달린 한쪽 강도의 아픔과 필요를 돌아보셨습니다(눅 23:39~43).

위의 예들 중 예수님께서 삭개오와 어떻게 관계를 맺으시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눅 19:1~10).

첫째는 상대방의 필요를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따돌림을 당하던 세리장 삭개오의 필요와 갈급함을 간파한 예수님은 그에게 다정한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둘째는 상대방이 특별하다고 느끼게끔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불러 주면 자신이 특별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유하겠다는 말씀에는 내가 너를 인정한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확실히 대우 받기 보다는 특별한 존재로 취급받기를 원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그만큼 전도에서 관계 형성은 복음 제시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순결'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불결하다고 치부하였습니다.

"세리장인 삭개오는 유대인이었는데 그는 그의 동포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었다. 그의 계급과 재산은 그들이 미워한 직업을 통하여 얻은 보수였으며 그것은 부정과 강탈이란 다른 이름으로 여겨졌다"(소망, 552~553).

아무도 삭개오의 이름이 불결하다고 생각하여 불러 주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자 삭개오의 마음은 감동을 받아 녹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의 남은 생애를 헌신하고자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감동을 받고 싶어 합니다. 사실 사람들은 언제나 감동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감동은 모든 장벽을 뚫고 들어가 사람들의 가슴에 파고드는 힘이 있습니다. 감동은 사람의 마음을 활짝 열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대하실 때 ‘너는 내가 염두에 둔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느끼게 만드십니다. 주님께서서는 베드로, 요한, 삭개오, 사마리아 여인, 나사로 등을 대할 때 늘 그러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만 서면 ‘나는 특별하구나.’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한 특별한 느낌은 사람을 감동시켜 닫힌 마음의 창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선물은 무엇인지 말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기 위해 커다란 일을 계획하지만, 정작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은 작은 일입니다. 친절할 말 한마디, 다정한 미소, 반가운 인사, 사려 깊은 호의, 용기를 북돋아 주는 한마디 말 등 작고 사소한 일이 사람의 마음을 두드리며 파장을 일으켜 변화가 일어나게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당신이 받은 감동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감동은 무엇인지 말해 보십시오.

당신의 오이코스 구도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줄 수 있는 특별 기획은 무엇입니까? 진정성이 통할 수 있는 선물일 수도 있고, 특별하고 의미 있는 식사 초대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계획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 서로 나누어 봅시다.



우리 다음과 같이 외쳐 봅시다.

“주여 우리가 나의 모든 오이코스들을 특별한 존재로 대우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활 속으로



1. 애경사 챙기기

내가 작성한 오이코스의 가장 절실한 필요는 무엇일까요?

오이코스들의 애경사를 사전에 미리 알아 둡시다.

애경사에는 가장 먼저 참석하여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시다. 관계를 여는 접촉점이요, 더 나아가서는 관계를 확고하게 하는 접촉제 역할을 합니다.

축하: 결혼, 생일, 출산, 기념일, 장학금, 합격, 졸업, 데이트, 승진, 졸업, 포상, 병고침, 개업 등

위로: 질병, 사고, 파산, 이혼, 장례 등

기타: 취미, 특기, 군 입대, 명절, 이사, 이민 등

오이코스의 최근 애경사에 참여했던 경험을 이야기해 봅시다.

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먼저 전도 대상자가 있는 곳으로 가십시오.

인간관계 확대를 위한 제언들

1. 교회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인사하기
2. 인사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에게 인사하기
3.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하기
4.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 주기
5. 일보다는 관계를 우선시하기
6.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신뢰감을 구축하기
7. 온 마음으로 대화하기
8.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기
9. 약점이 아닌 장점을 이야기하며 교제하기
10. 모든 사람을 특별하게 대우하기
11. 전도 대상자와 같이 여행 떠나기
12. 애경사나 연말연시 같은 특별한 날에 작은 선물이나 카드 보내기

2. 나의 관계 맺기 진단

이제 우리 각자의 관계를 진단해 봅시다.

나의 관계 지수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 질문마다 점수를 주십시오.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렇지 않다.
3점	2점	1점	0점

1. 나는 모든 만남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만남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는다. ()

2. 나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기도하며 의식적으로 노력을 한다. ()
3. 나는 일상생활에서 일보다는 관계를 중요시한다. ()
4. 나는 사람들과 교제할 때 상대방의 가치를 높여 주고, 인정해 주고, 격려해 주려고 노력한다. ()
5. 나는 낯선 사람과 마주칠 때 내가 먼저 인사하고 말을 건네는 편이다. ()
6. 나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 주의 깊게 경청하는 편이다. ()
7. 나는 주변 사람의 애경사를 기억하고 챙겨 주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
8. 나는 사람의 외모보다는 중심을 보는 편이다. ()
9. 나는 대화 중에 나 자신에 대해 솔직히 드러내어 보여 주는 편이다. ()
10. 나는 사람들을 만날 때 기대감도 있고 즐겁다. ()
11. 나는 소수의 사람과 깊이 사귀면서도 다양한 많은 사람과도 교제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
12. 나는 각종 모임과 봉사단체에 참석하여 새로운 인간 관계망을 확장하고 있다. ()
13. 나는 애경사나 연말연시 같은 특별한 날에 작은 선물이나 카드를 보낸다. ()

당신의 관계 지수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의 관계 지수 : /39)

30점 이상	25~29점	24점 이하
좋음	보통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됨

이제 소그룹 안에서 당신의 관계 지수를 알아 보는 일을 통해 당신의 관계 맺기 스타일에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말해 보십시오.

3. 좋은 관계 형성하기

사람의 관심(취미)과 절실한 필요와 '애경사'는 관계를 새롭게 여는 문이요,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접착제와 같습니다. 우리가 작성한 오이코스 구도자들의 관심(취미), 필요와 애경사 등을 살펴 관계를 열고 발전시켜 나갑시다.

엠펙 2:14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다음의 표에 따라 당신의 계획을 세워 보십시오.

이름	관심(취미)	필요	경조사(내용, 일시)	관계 맺기 전략

4.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기

성경은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렘 17:9) 다음의 테스트는 관계의 영역에 있어서 자신이 스스로 평가해 볼 수 있도록 마련된 것입니다.

1. 거의 언제나 2. 예외 없이 3. 대개는 4. 때때로 5. 드물게 6. 결코 하지 않음

① _____ 나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멀리하는 대신 그 사람을 향해 마음을 움직여 다가가도록 힘쓴다. 마음을 움직여 다가간다는 것은 '친절한 행동으로

다가가는 것, 전화를 걸어 대화를 나누는 것' 등을 의미한다(롬 12:8).

② _____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줄 때 비록 그들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 해도, 나는 그 사람들을 용서한다(골 3:13).

③ _____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난처하게 했다고 여기면,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용서를 구한다(마 5:23).

④ _____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나는 그것이 선한 동기에서였을 것이라고 여긴다(고전 13:6~7).

⑤ _____ 나를 비평하는 사람을 공격하지 않고 나 자신을 방어하지도 않고 그 비판을 받아들인다(마 5:11).

⑥ _____ 나는 남의 험담을 하거나 나쁜 평가를 전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 주기 위해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나누려고 노력한다(엡 4:29).

⑦ _____ 나는 나에게 일어난 나쁜 일들을 말하는 대신에 진실한 것, 깨끗한 것, 뛰어난 것만을 말하려고 결심한다(빌 4:8).

⑧ _____ 나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한다(약 1:19).

⑨ _____ 나는 어느 누구든 판단하지 않도록 조심한다(마 7:1).

⑩ _____ 나는 불평하지 않고 친절히 접대하는 것을 실천한다(벧전 4:9).

⑪ _____ 나는 나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배려한다.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내 앞으로 가도록 기꺼이 양보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나의 계획을 기쁘게 포기한다(빌 2:3~4).

⑫ _____ 나는 자기의 느낌을 말하는 사람을 비판하거나 또는 그들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상처 받은 이들에게 위로를 해 준다(롬 12:15).

⑬ _____ 나는 내 잘못을 적어도 한 사람 이상의 다른 그리스도인에게 고백한다(약 5:16).

⑭ _____ 비록 그들이 가난하고, 곤궁하고, 황설수설하고, 더럽고, 진절머리 나고, 불쾌하다 할지라도 나는 모든 사람을 애정을 갖고 받아들인다(롬 15:7, 약 2:1).

⑮ _____ 나는 다른 사람의 실수를 지적하기 보다는 그들을 격려한다(히 3:13; 10:25).

(a) 만일 당신이 위의 테스트에서 거의 1~3까지의 번호를 얻었다면 분명 당신은 좋은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4~6까지의 번호를 얻었다면, 그것은 당신의 행동이 당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최선의 뜻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가리킵니다. 당신은 어떠합니까?

(b) 당신이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계명들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성장을 위하여 가장 많이 기도해야 할 영역은 어느 영역입니까?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① 예수님께서서는 사람들을 유심히 살펴보고, 그들과 섞이시고, 먼저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보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내 삶 주변의 오이코스들의 필요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는 사람들이 됩시다.

- ② 작성한 오이코스들의 필요와 경조사를 알아 돕시다. 그리고 그것을 당신의 전도수첩에 적어 놓읍시다. 오이코스 중보기도 카드에도 적어 놓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코이노니아 함께 찬미하기



다 같이 일어나 '주 예수 넓은 사랑'을 부릅시다.

그리고 한 주 동안 이 곡으로 찬양하며 가사를 통하여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한 주를 살아갑시다.



기본곡 : 찬미가 233장 '주 예수 넓은 사랑'

추천곡 : 1. 당신을 향한 노래

2. 영원한 사랑

3. 작은 불꽃 하나가

4.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코이노니아 합심 기도회



- ① 우리는 인간관계마저도 인스턴트식품과 같이 가볍고 겉으로만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혹시 나 자신도 피상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나의 인간관계를 냉철히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께 잘못된 점들에 대해 용서를 구합니다.

- ② 주님께로 인도하기로 마음에 작정한 나의 오이코스 구도자들에게 집중적 관심과 사랑을 보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 ③ 탁월한 관계의 대전문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는 가장 강력한 실체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작정한 구도자 오이코스들에게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미리 보기



- ① 한 주일 동안 나의 오이코스들을 찾아가 그들의 애경사, 관심, 취미, 고민거리 등을 알아보고 전도수첩에 그들의 상태를 적고 그들을 위하여 아침저녁으로 기도합니다.

- ② 8단계 '오이코스를 초청하라'의 기억절 마 10:16을 전도수첩에 있는 말씀 암송표를 활용하여 암송하십시오.

오이코스를 초청하라

기억절

마 10:16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드디어 코이노니아 생활전도 훈련학교의 마지막 시간, 추수하기에 도달하였습니다.

1차원의 좋은 나무가 되어

2차원의 좋은 열매를 많이 맺고

3차원의 풍성한 추수를 하게 되는 것은

농부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꿈일 것입니다.

영적으로 풍성한 추수를 잘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우리의 오이코스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친해져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의 사랑과 진정성을 느끼고 서서히 인정할 즈음엔 그들을 나의 교제권(생활권 - 나의 가정, 소그룹, 교회 등)으로 초청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코이노니아 파워 인사



힘이 되는 파워 인사

- ① 당신이 최고입니다.
- ② 요즘 너무 멋져 보여요.
- ③ 제가 도와드릴게요.
- ④ 우리 같이해요.
- ⑤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 ⑥ 당신이 없어서는 안 돼요.



1. 우선 조별로 가장 기운이 없어 보이는 두 사람을 뽑으십시오.
2. ①번에서 ⑥번까지 이어지는 파워 인사를 말뿐 아니라 동작과 표현까지 아울러 두 사람에게 집중하여 인사합니다.
3. 조원들로부터 파워 인사를 받은 두 사람이 파워 인사 체험 후의 느낌을 나누어 봅시다.

기억해 봅시다



- ① 지난 한 주일 동안 나의 오이코스들과의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셨습니까?
- ② 지난 한 주일 동안 나의 오이코스들을 찾아가 그들의 애경사, 관심, 취미, 고민거리 등을 알아보고 전도수첩에 그들의 상태를 적고 그들을 위하여 아 침저녁으로 기도하셨습니까?



- ① 우리는 종종 전도의 부담만을 가진 채 구체적인 행동을 실천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이코스를 품는 일, 오이코스와 친해지는 일에 이어 우리는 작은 실천을 해야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 실천하지 못했던 것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여 우리가 품은 오이코스들을 위해 축복의 통로로서 분명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② 코이노니아 생활전도 훈련학교를 함께 졸업하는 우리 공동체가 훈련학교 기간 이후에도 비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품성을 전함으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많은 영혼이 거듭나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성장하여 소금과 빛으로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합니다.

말씀 속으로



1. 적극적인 전도

행 4:19~20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위의 말씀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적극적으로 전도하는 모습이 느껴집니까?
사도들과 초대 교인들의 전도의 특징은 적극적인 전도입니다.

전도의 기본은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복음을 주위의 오이코스들에게 적극적으로 전하고 나의 교제권(생활권 - 나의 가정, 소그룹, 교회 등)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을 만나기에 적합하게 되도록 그리고 매일의 교제에서 죄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매우 열렬히 기도하였다”(행적, 37).

행 20:24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 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열정을 본받읍시다. 열정이 세상을 바꿉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타오르는 불꽃처럼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영혼 구원을 향한 열정이 불타올라야 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축구경기로 비유하면 후반전 마지막 5분의 상태입니다. 이때는 전 선수가 공격에 집중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영혼 구원에 전념해야 합니다.

롬 9:1~3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 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행 20:26~27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 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라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하라.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피 흘리는 그의 옆구리로 가까이 가라. 온유하고 정숙한 정신으로 그대들의 생애를 단장하라. 그대들 자신의 영혼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영혼도 구원하는 일에 성공을 거두기 위한 지혜를 얻고자 열렬하게 통회하면서 겸손하게 그분께 간구하라”(1증언, 513).

2. 초청의 기본가: 와 보라

요 1:46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초청의 기본가는 가족, 친구, 이웃, 직장 동료 등 주위 오이코스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소개하며 '와 보라'고 예수님을 섬기는 나의 가정이나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소그룹이나 교회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초청의 달인들이 등장합니다.

① 안드레와 빌립: 형제와 친구 초청

요 1:40~41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좇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의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메시아를 만난 감격과 기쁨으로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그다음 날 아침 곧장 자기 형 베드로에게 달려가서 메시아를 만난 사실을 이야기하고 주님께 인도했습니다. 곧이어 안드레와 한 동네(벳새다) 사람인 빌립은 그의 친구 나dana엘을 찾아가 주님을 만난 사실을 이야기하고 '와 보라'고 초청하였습니다. 안드레와 빌립은 친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그들의 오이코스들을 주님께로 인도한 것입니다.

내가 초청해야 할 나의 베드로와 나dana엘은 누구입니까?

② 사마리아 여인: 동네 주민 초청

요 4:28~30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마리아 여인은 숨기고 싶은 자신의 과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피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만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알고 난 후 곧바로 취한 행동은 동네로 들어가 주민들에게 담대하게 그 사실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③ 빌립보 간수: 가족전도

행 16:30~34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침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 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 복음을 들은 후에 즉시 그와 온 집안 식구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빌립보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이 구원받은 것처럼 이번 코이노니아 생활전도 훈련학교를 통하여 먼저 나의 가족이 구원받고 내가 초청하는 나의 오이코스뿐 아니라 그의 모든 가족도 구원받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1. 초청의 기술

약 1:5은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의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오이코스들을 지혜롭게 초청하십시오. 이제 여기서 ‘초청의 기술’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기술보다 기도가 먼저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① 삶의 공통분모를 찾으라(동화)



동화란 우리가 불신자들의 삶과 그들이 느끼는 감정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입장이 되어서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웃고, 우는 가운데 그들의 필요와 아픔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며,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과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이해와 존경과 사랑 가운데서 그들과 교제할 수 있다면, 그들의 영혼을 감싸고 있는 벽들은 차츰 무너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타인과 교제할 때 자신을 그의 처지에 두라. 그들의 자각과 곤란과 실망과 기쁨과 슬픔에 들어가라. 그대 자신을 그들과 동일시하라. 그리고 그대가 그들과 입장이 바뀌었을 때 그대가 그들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라. 이것이 의의 진정한 법칙이다”(청년, 420).

② 삶의 공통분모에 대하여 속마음을 나누고 깊은 대화 중에 초청하라



오이코스를 찾아가서 자신의 아픔과 상처, 부부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우울증 등 내면의 문

제를 이야기하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십시오. 그러면 '저분은 잘 지내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나와 같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는구나.' 하고 친근감을 느끼며 속마음을 털어놓게 되고 깊은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인생의 공통의 문제들을 이야기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대화가 흘러야 함을 기억하십시오.

③ 식사에 초청하라



오이코스들과는 반드시 식사를 함께하셔야 합니다. 친구의 기본은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입니다. '친구'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 'Companion'에서 'Com'은 '함께'라는 의미이고, 'pan'은 '빵'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친구는 '빵을 함께 먹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되도록이면 음식을 나누십시오. 게다가 한국 문화는 먹는 문화입니다. 기회를 만들어 자주 음식을 주고받으며 따뜻한 정을 나누는 가운데 두터운 친분관계를 쌓아서 나의 교제권(생활권)으로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④ 감동의 순간을 만들라



오이코스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감동의 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감동을 받으면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려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눅 10:30~37)가 주는 교훈은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늘 사랑을 외쳤지만, 막상 기회가 왔을 때는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은 천대받는 신분으로 살았지만 막상 강도를 만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났을 때, 이웃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우리의 실제의 삶 속에서는 대단한 일을 해야만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작지만 친절한 말 한마디, 다정한 미소, 반가운 인사, 사려 깊은 호의, 용기를 북돋아 주는 생각, 실천하는 행동이 잔잔한 감동을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눅 10:36~37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감동의 순간 만들기

어렵고 힘든 시간을 함께 지내며 위로하기

사소한 일도 기억해 주고 안부 물어 주기

꼭 필요한 도움 베풀기

함께 취미활동 하기

함께 식사하기

작지만 사랑이 담긴 선물하기

가슴이 찡한 멋진 칭찬하기

진심이 담긴 편지나 쪽지 쓰기

⑤ 자연스럽게 간증하며 초청하기



요일 11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말씀 가운데 거하며 늘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성령의 은혜의 역사로 인하여 간증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날마다 간증이 넘쳐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간증은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의 삶을 살 때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간증은 매우 강력한 복음 전도의 한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변화된 자신'을 간증하는 것은 좋은 전도 방법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변화된 자신을 과거에 비추어 3분 정도 간략하게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사도 바울도 종종 변화된 자신을 증거로 내놓았습니다(행 22:1~21). 효과적인 간증은 짧아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후의 삶을 비교하되 간증의 초점은 실제적으로 당신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가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불신자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가능하다면 적합한 성구를 암송하여 사용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개인 간증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신의 변화된 삶을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간략한 간증문을 구상해 봅시다.

3분 간증문 작성하기

(a)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나의 삶은 어떠했나요?

(b)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영접하게 되었나요?

(c)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거듭난 나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위의 3단 간증논법에 따라 작성한 간증문을 가지고 두 사람이 짝을 지어 실습해 봅시다.

〈* 간증문 작성에 대한 참고자료는 부록 2를 참조하세요!〉

2. 수용성에 따른 초청 전략(* 부록 3참조)

① 수용성에 따른 분류

비신자 오이코스들은 복음에 대한 수용성 정도에 따라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정도	분류
수용적임	복음과 교회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오이코스
중립/무관심	복음과 교회에 대해 무관심하고 종교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보이는 오이코스
부정적임	복음과 교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오이코스

수용성은 계속 변하기에 전도자는 항상 이에 민감하게 전도 전략을 수정해야 합니다.

오이코스 중보기도 카드를 펴놓고 수용성 정도에 따라 오이코스들을 분류합니다.

수용성 정도에 따라 분류하는 이유

- (a)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오이코스들을 발견하여 그들에게 우선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 (b) 오이코스들의 수용성 정도, 그리고 형편과 처지를 고려하여 전도 전략을 그에 맞게 적절하게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 (c) 복음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거부하는 경우, 그 원인을 찾아 그에 대처하며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② 관계 상태에 따른 3가지 분류

수용성과 함께 관계성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오이코스와의 관계 상태를 다음의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수용성	관계 상태	접근방식
좋음	관계 상태가 좋은 오이코스	복음 전도를 위해 지금 당장 접근해도 무방합니다.
보통	관계 상태가 보통인 오이코스	관계 발전을 위해 좀 더 배려한 후에 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나쁨	관계 상태가 나쁜 오이코스	복음 전도보다 관계 개선과 회복에 힘써야 합니다.

오이코스 중보기도 카드를 펴놓고 나와 오이코스와의 관계 상태와 개선책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수용성에 따른 오이코스 초청 전략에 대한 참고자료는 부록 2를 참조하세요!〉

3. 초청의 실제

나의 오이코스 초청 전략을 구체적으로 세워 봅시다.

- ① 누구를?
- ② 언제?
- ③ 어디서?
- ④ 어떻게?

오이코스를 방문하고 약속하고 만나는 가운데 실수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미국 메이저리그의 전설적인 홈런왕 베이브 루스도 718개의 홈런을 치는 동안 삼진 아웃을 1,330번이나 당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이코스 초청 10대 점검사항

- 1) 나의 오이코스 가운데 베스트 3인을 정하셨나요?
- 2) 베스트 3인의 신상에 대해 노트하셨나요?
- 3) 매일 베스트 3인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나요?
- 4) 전화나 가벼운 방문으로 문안인사를 하셨나요?
- 5) 식사하는 시간을 가졌나요?
- 6) 경조사에 참석하셨나요?
- 7) 선물이나 편지를 전달하셨나요?
- 8) 상대방의 장점에 대하여 칭찬해 주신 적이 있나요?
- 9) 베스트와 속마음을 나누는 깊은 대화를 하셨나요?
- 10) 꼭 필요한 도움을 베푼 적이 있나요?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 ① 나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담대하게 나의 오이코스들에게 전할 수 있습니까? 먼저 나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고 경험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 ② 나의 오이코스들을 나의 교제권(생활권)으로 초청하기 위하여 어떻게 다가 가고, 언제, 어떤 식으로 복음을 나누고 나의 가정과 소그룹 그리고 교회로 이끌 수 있을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진행 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도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잠 16:9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코이노니아 함께 찬미하기



다 같이 일어나 '부름 받아 나선 이 몸' 찬미를 부릅니다.

그리고 모든 훈련이 마친 후에도 이 가사처럼 주님의 사업에 헌신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본곡 : 찬미가 426장 '부름 받아 나선 이 몸'

추천곡 : 1. 주가 필요해

2.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3. 축복송

4. 가서 제자 삼으라

코이노니아 합심 기도회



① 우리가 오이코스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적절한 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복음을 전해야 할 때에 당당하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② 우리의 오이코스 중 복음과 교회에 대해 부정적이고 심지어 강하게 거부하

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합시다. 그리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않으며(갈 6:9), 인내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8주 동안 코이노니아 생활전도 훈련학교를 통하여 복음 생활의 기본기가 여러분의 삶에서 숙달되기를 훈련하였고, 또한 성도의 삶의 체질을 변화시켜 일상생활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전도의 열매가 계속해서 맺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생활훈련을 받으셨습니다.

본 교육훈련이 한 번의 행사로 경험해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끊임없이 상기, 반복, 실습, 기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좋은 나무가 되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푸신 예수님을 닮은 좋은 나무로 성장하게 되고, 좋은 열매와 풍성한 수확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재림성도의 삶을 살게 되시리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나를 변화시키시고, 내가 위하여 기도하는 영혼을 변화시키시는 풍성한 늦은 비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되기를 기도합니다.

1. 예화

아낌없이 주는 나무 - 쉐일 실버스타인 지음

먼 옛날에 한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게는 사랑하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하루도 빠짐없이 나무에게로 와서 떨어지는 나뭇잎을 한 잎 두 잎 주워 모았습니다. 그러고는 나뭇잎으로 왕관을 만들어 쓰고는 숲 속의 왕자가 되어 놀았습니다. 소년은 나무에 기어 올라가서는 나뭇가지에 매달려 그네도 타고 사과도 따 먹곤 했습니다. 나무와 소년은 가끔 숨바꼭질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피곤해지면 소년은 나무 그늘에서 단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소년은 나무를 너무나 사랑했고,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갔고, 소년도 차차 나이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혼자 있을 때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이 나무를 찾아갔을 때 나무가 말했습니다. “얘야, 내 줄기를 타고 기어 올라와서 가지에 매달려 그네도 타고 사과도 따 먹고 그늘에서 놀면서 즐겁게 지내자.”

그러자 청년이 된 소년은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나무에 올라가 놀기에는 너무 커 버렸는걸. 나는 물건을 사고 싶고 신나게 놀고 싶단 말이야, 그리고 돈도 필요해. 나에게 돈을 좀 줄 수 없겠니?” “내겐 나뭇잎과 사과밖에 없어. 얘야, 내 사과를 따다가 시내에서 팔지 그래. 그러면 돈이 생길 거고 너는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그리하여 소년은 나무 위로 올라가 사과를 전부 따 가지고 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소년에게 자신의 열매를 준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얘야, 내 줄기를 타고 기어 올라와서 가지에 매달려 그네도 타고 사과도 따 먹고 그늘에서 놀면서 즐겁게 지내자.” “나는 나무에 올라가 놀 수 있을 만큼 한가롭지 않단 말이야.”라고 어른이 된 소년이 대답했습니다. “내게는 나를 따뜻하게 해 줄 집이 필요

해. 아내도 있어야 하겠고 아이들도 있어야 해. 그래서 집이 필요해. 너 나에게 집 하나 마련해 줄 수 없겠니?” “나에게는 집이 없단다.” 나무가 대답했습니다. “이 숲이 나의 집이야. 하지만 내 가지들을 베어다가 집을 짓지 그래.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그리하여 소년은 나뭇가지들을 베어서 집을 짓기 위해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나 소년에게 자신의 나뭇가지를 전부 준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이번에는 떠나간 소년이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중년이 된 그가 돌아오자 나무는 말할 수 없이 기뻐서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애야, 이리 와 나와 놀자.” “나는 너와 노는 것보다는 저 먼 나라로 가는 것이 더 재미있을 것 같아. 너 나에게 배 한 척 마련해 줄 수 없겠니?” “그럼 내 줄기를 베어다가 배를 만들려무나.”라고 나무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너는 멀리 여행할 수 있고, 그리고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그리하여 소년은 나무의 줄기를 베어서 배를 만들어 타고 멀리 떠나가 버렸습니다. 나무는 행복했지만, 정말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노인이 된 소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애야 미안하다. 이제는 너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사과도 없고.” “이빨이 나빠져서 사과를 먹을 수가 없어.” 소년이 말했습니다. “내게는 이제 가지도 없으니 네가 그네를 탈 수도 없고.” “나뭇가지에 매달려 그네를 뛰기에는 나는 이제 너무 늙었어.” 소년이 말했습니다. “내게는 즐기마져 없으니 네가 기어오를 수도 없고.” “나는 힘이 없어서 기어오를 수도 없어.” 소년이 말했습니다. 나무가 한숨을 지으며 “미안해. 무언가 너에게 주었으면 좋겠는데...”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제 내게 필요한 건 별로 없어. 그냥 앉아서 쉴 조용한 곳이나 있었으면 좋겠어. 나는 몹시 피곤해.” 소년이 말했습니다. “아 그래.”라며 굵은 몸뚱이를 애써 펴면서 나무가 말했습니다. “자, 앉아서 쉬기에는 늙은 나무 밑동이 그만이야. 이리로 와서 앉아. 앉아서 편히 쉬도록 해.” 소년은 나무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자신의 밑동에 앉아 있는 소년을 바라보는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행 20:35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자기희생의 법칙은 자기보존의 법칙이다. 농부는 곡식을 흠어 버림으로 그의 곡식을 보존한다. 인생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주는 것이 사는 것이다.”(소망, 623)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한 안데르센의 동화입니다. 자신의 참모습을 인식하지 못했던 미운 오리 새끼가 힘든 처지와 슬픈 시절을 곳곳하게 이겨내고 자신의 본모습을 찾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찾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사실이 동화가 작가인 안데르센의 경험이 담긴 내용이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안데르센은 19세기 초엽 덴마크 오텐세에서 가난한 구둣방 주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열한 살의 나이에 아버지를 여의고 공장에 나가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안데르센은 불우한 현실에 굴하지 않고 수도 코펜하겐으로 가서 문학도로서 길을 가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왕립극장의 지배인인 콜린이라는 후원자를 만나게 되고 대학에서 시와 소설을 쓰고, 곧이어 그의 작품들은 좋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유명해진 안데르센은 어느 날 유명한 사람의 집에 초대되어 아름다운 연못을 산책하다가 연못에서 노니는 아름다운 백조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아름답고 품위 있는 새로구나.’ 이렇게 감탄하고 있을 때 저쪽에서 새끼 백조가 헤엄쳐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기품 있는 어미 백조에 비해 새끼 백조는 너무나 어설피고 볼품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 못난 새끼 백조가 이렇게 의젓한 어미 백조가 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으랴. 마치 나의 모습 같구나.’

안데르센은 그동안 자신이 겪었던 수많은 방황과 어려운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용기를 잃지 않은 덕분에 만나게 된 콜린과 그의 도움. 그런 것들이 없었다면 그의 글재주는 발휘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연못가에서 느꼈던 깨달음을 소재로 ‘미운 오리 새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그는 더욱 유명해졌으나 항상 겸손하였으며 어려울 때도 자신감을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2. 간증문 작성 시 참고 자료

일 분 간증! Monte Sahlin(창조사역센터, 링컨, 네브라스카 창조사역센터, 2003)

서문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은 더 이상 안식일 오후에 둘씩 짝을 지어 집집 방문을 하는 것만이 아니다. 물론 여전히 몇몇 이웃들에게는 필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미국 사회에서 여러분이 먼저 전화를 하고 약속을 하지 않는다면, 문 앞에 갑자기 나타나는 것은 실례로 여겨진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은 이제 당신이 일하는 곳이나 학교에서 주로 일어나는 어떤 일이다. 그것은 프로그램이 아니다. 그것은 기대치 않게, 비형식적으로 “전혀 기대할 수 없는” 매일의 삶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이다. 그것은 쇼핑할 때, 머리를 자르거나 조깅할 때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가족 모임이나 동창회 그리고 은퇴식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사실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직장 동료들이나 지역사회에서 당신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나 다른 지인들에게 숨긴다면, 그들은 결국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왜 당신 자신에 대하여 결코 나누지 않았는지 의아해하는 사실로 그들에게 증언하게 될 것이다. 예의상 당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알았다고 말하거나 당신의 침묵에 대해 궁금해했던 것을 말하지는 않겠지만, 지울 수 없는 증거는 그들 마음의 한편을 차지할 것이다.

재림교인들은 항상 “증인” 대신에 “증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이제 그것을 바꿀 필요가 있다. 그것은 더 이상 조직된 프로그램이나 증명된 방법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남기는 일종의 인상에 관한 것이다. 그것은 옆 책상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나 이웃에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남기는 믿음의 증언에 관한 것이다.

1. 인식

당신은 당신이 일하고 있는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해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가? 지
역사회의 지인들에게는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가? 재림교회 문화 밖의 이 세상에서 당
신은 어떻게 알려져 있는가?

증언은 언제나 당신이 입을 열거나 손을 내밀기 이전에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가지
고 있는 인식에서 시작한다. 우리는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다. 따라서 “매체가 메시지
이다.”

당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인식은 당신이 행하고 말하는 것의 테를 두른다. 당신이 말
할 때 그들이 이미 당신이 누구인가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에 의해 다른 사람들이
듣는 것이 바뀐다.

만약 내가 당신이 알고 있는 “세상 밖의” 사람들과 인터뷰를 한다면, 그들이 무엇이
라고 말할까? 그들은 당신을 종교적인 사람이라고 말할까? 친절한 사람? 공평한 사
람? 다른 사람들을 진심으로 염려하는 것처럼 보이고 도와주고 힘을 북돋아 주는 사
람 대다수의 미국인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 그 말은 어떤 종교적인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대부분은 아마도 어릴 적에 종교에 대한 접촉을 조금 경험하였을
것이다. 그들은 종교를 소수의 “팬”들이 즐기는 취미 정도로 본다. 대부분이 “종교적인
기호”를 가지고 있을 뿐이다. 즉 만약 결혼식이나 장례식 같은 종교적인 예식이 필요하
게 된다면, 가족력이나 개인적인 취향 때문에 선호하는 그런 믿음이다. 그들 중에 몇은
교회에 참석하는 것을 멈췄을지라도 녹명책 어딘가에 여전히 이름이 적혀 있는 사람
도 있다. 대부분의 사람은 종교에 대하여 부정적이지 않다. 다만 잘 모를 뿐이다. 그들
은 종교를 화제로 꺼내는 것을 예의 바르지 않을 뿐 아니라 삶의 “개인적인” 부분으로
본다. 종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얼마나 버세요?”라고 묻는 것과 같다.
결과적으로, 너무 종교적인 사람은 이미 증언의 문을 닫았을 지도 모른다.

엘렌 G. 화잇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세우신 모본을 설명한다. “구주께서는 사람들의
유익을 소원하는 분이로서 그들과 섞이셨다”(치료봉사, 143). 그분은 물러나 있거나
구별되게 오신 것이 아니라 “섞이시고자” 오셨다. 그분은 비난하고 비판을 하거나 거들

먹거리는 입장을 취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종교적으로 뭐든 다 아는”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았다. 사실, 당시의 경건한 사람들은 그분이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고 비난하였다(눅 5:30).

증언을 위한 시작은 당신이 가까이하기 쉽고, 진실하며, 친절하고 다정한 사람, 공평하고 정직한 사람, 피스메이커라는 인식이다. “만일 우리가…친절하고 예모 있고 부드럽고 동정적인 것 같으면 오늘날 단 한 사람밖에 없는 곳에 일백 명의 사람이 진리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교회증언 9권, 189).

2. 연민

어떻게 당신은 증언을 받아들이는 데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증언하기 시작하겠는가? 어떻게 우리는 종교가 개인적이며 화제로 꺼내는 것이 예의 바르지 않은 것이라 믿는 대다수의 사람에게 예수님을 나누기 시작할 것인가? 사실, 당신이 행하는 것이 당신이 말하는 것보다 더 힘이 있다. 모든 사람은 말하는 것과 그들이 실제로 행하는 것 사이에 거리가 있다는 것을 안다. 우리는 그러한 거리를 “위선”이라 부른다. 예수님께서만 위선에 대하여 강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마 6). 오늘날의 연구는 보통의 현대인들이 교회에 간다는 생각에서 돌아서게 하는 주된 이유들 중 하나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사이의 위선을 보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한 비신자가 내게 말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관한 것이라고 말해. 그러나 교회에는 너무 많은 규칙이 있고 사람들은 차가워.” 만약 당신이 이것이 본능적 반응이라고 생각한다면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 해 동안 직업 관계로 만나게 된 한 여자는 내게 말했다. “저도 확실히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단지 조직화된 종교의 근본적인 위선을 납득할 수 없을 뿐입니다. 어떻게 그들은 주변에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일주일에 한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그 많은 돈을 쓸 수 있나요?” 연구는 현대인들 5명 중의 4명은 이 여인의 말에 동의한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 그들은 사회 사업에 눈에 띄게 참여하지 않는 어떤 종교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

몇 년 전에 나의 동료들은 어떻게 돌보는 교회가 되는지에 관한 비디오프로젝트를 만들었다.

그들은 일반 시장에서 전문 배우들을 고용하였다. 프로젝트의 끝에 배우들 중 한 명이 말했다. “저는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지만 만약 이런 교회가 있다면 가고 싶네요.” 당신은 일터에서 또는 당신이 살고 있는 이웃에서 “말한 대로 행하고” 있는가? 당신은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나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알아차릴 수 있는 의미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는가? 이것은 증언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엘렌 화잇은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그의 초기 단계로 “동정심을 보여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다(치료봉사, 143). 만약 당신이 매일 실제적인 방법으로 연민을 나타낸다면, 잃은 자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해 그의 삶을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 진술하는 것이다. 이러한 비언어적인 증언은 당신이 후에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상대방을 준비시킬 것이다.

이것은 “임의의” 친절한 행동이 아니라 삶에 대해 진정한 그리스도적인 접근을 보여주는 끊임없는 돌봄이다. 진실함의 증거는 정규적으로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고,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며, 병자들을 고치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해 변호하는 데 시간과 돈 그리고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람이다(마 25장). 당신의 삶은 이러한 진정한 인간적인 관심을 입증하는가?

3. 경청

증언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오해는 이것이 “무엇을 말할 것인가”로 시작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사실, 진정으로 효과적인 그리스도적 증언은 무엇을 말하려고 노력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데서 시작한다. 당신이 진심 어린 경청자라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상대방이 들을 준비가 될 때까지 상대방은 당신이 말하고 싶은 것을 충분히 들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경청은 개인적인 사역에서 여러 중요한 단계를 달성한다. 그것은 확실히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여 주는 이타적인 행위이다. 경청은 당신이 사역하는 사람의 태도와 개인적인 역사 그리고 필요에 관한 정보를 얻게 한다. 경청은 상대방이 그들 자신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필요를 생각하도록 돕는다. 경청은 비신자나 이름만 신자인 사람들이

심각하게 그들의 영적인 필요와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할 수 있도록 더 깊은 대화의 문을 열게 한다.

연민을 보여 주는 단순한 매일의 방법은 당신 주변의 사람들의 말을 유의하여 듣는데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당신 주변의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아주 이타적인 방법이다. 대부분의 사람이 경청하지 않으므로 이것은 귀한 은사이다. 사람들이 당신을 “훌륭한 경청자”라고 칭찬하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우정 전도에 첫 번째 기초를 구축한 것이다. 경청은 당신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알도록 돕는다. 당신이 증언을 통해 올바르게 예수님을 나타내고 싶다면 이것은 중요한 지식이다. 예수님은 그들의 “필요를 돌보는 사역”을 하셨다(치료봉사, 143). 만약 당신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 주길 원한다면, 그들의 필요를 잘 알아야 한다.

반영적 경청(Reflective listening)은 또한 다른 사람들이 그들 자신에 대하여 더 많이 알도록 돕는다. 성경에(예: 욥기) 많은 대화가 있는 이유는 사람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사려 깊은 대화의 방법을 통하여 그들의 감정을 정리하고 그들의 윤리와 믿음을 생각해 보게 하시 위함이다.

오늘날의 세상이 너무 세속적인 이유 중 하나는 시간에 대한 압박 때문에 이러한 대화를 할 시간이 거의 없다는 데 있다.

물론, 경청은 영적인 것들을 생각하도록 문을 연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대한 깊은 내적 필요를 지니고 있다. 친밀한 대화를 통해 만들어진 조용한 공간에서 “세미하고 조용한 음성”이 들리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는 지상에서 그분의 삶을 통하여 이것을 보여 주셨다. 33년을 이 땅에 계신 동안, 그분은 3년의 기간 동안 말씀을 전하기 전에, 처음 30년을 경청하고 지켜보는 데 보내셨다. 만약 우리가 그분의 모본을 따라 우리 시간의 90퍼센트를 경청하는 데 쓰고 10퍼센트를 말하는데 사용한다면, 그의 복음을 전하는 더 나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4. 우정(관계)

교회에 참석하는 대다수의 사람은 교회에 다니게 된 주된 이유가 직장이나 학교 또

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에서 알게 된 관계때문이라고 말한다. 친구나 친척, 또는 이웃이 그들에게 그리스도와 교회를 소개한 것이다. 이것이 “우정(관계) 전도”가 전략적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중요한 이유이다.

동시에 실제로는 “양날의 칼”이다. 만약 비신자가 당신이 그에게 친절한 유일한 이유가 그를 개심시키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당신이 진정한 친구가 아니라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 여겨 당신의 증언에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많은 그리스도인이 실제로 우정(관계) 전도에 참여하고 있지만 좋은 결과를 이루지 못하는 이유이다. 교회에 다니게 된 친구가 있는 수백 명의 교인을 인터뷰하고 그들에게 물었다. “어떻게 해서 친구가 교회에 다니게 되었나요?” 대부분의 사람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요.”라고 대답했다. 진정한 우정(관계) 전도는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계산적이고 조종하는 듯한 증언은 효과적이지 못한다. 그것은 비신자가 진실함의 부족을 알아챌 수 있기 때문이다.

진실한 증언은 상대방이 “미끼”로서가 아니라 정말로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여 함께 있는 것을 의미한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당신의 지인들은 당신이 “편안”해하는지 “눅시질”을 하고 있는지를 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신뢰를 얻으셨다.” 그분의 방법만이 그분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있어 “진정한 성공”을 가져올 것이다(치료 봉사, 143).

당신은 믿을 만한 증언자인가? 당신은 믿지 않는 지인들과 교회에 다니지 않는 지인들에게 그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참으로 즐기는 진정한 친구로 여겨지는가? 누가 그들을 진심으로 염려하며 그들의 최고의 관심을 마음에 두겠는가?

실제적인 면에서, 당신은 개심시키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그것을 기꺼이 포기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약간 다른 상황에서 이 원칙을 언급하신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마 16:25). 진실함은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드리는 가장 힘 있는 증거이다. 진실함의 첫 번째 시험은 우정의 진실함이다.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당신의 믿지 않는 친구와 함께 있기를 기뻐하며 비록 그들이 결코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을 것이 확실함에

도 계속해서 함께 시간을 보낸다면, 당신은 시험에 통과한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들이 당신의 증언을 보고, 그들의 삶을 그리스도께 드리는, 전에 생각해 보지 않은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가장 힘 있는 증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있기를 기뻐하며 동시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것이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가시적이고 접근 가능한 것이 되게 한다.

5. 준비가 됨

당신의 친구나 직장 동료, 이웃, 친척이나 다른 지인들이 영적인 것에 대해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어떻게 아는가? 그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 종교적인 화제를 꺼내면, 당신은 그들이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는 것이며 미래에 진정한 증언의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그들이 준비가 되었는데 당신이 그것을 감지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당신이 그들과 영적인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릴 것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한 가지 원칙은 특히 이 점과 관련이 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며 성내기도 더디 하라”(약 1:19). 우리는 종종 우리가 증언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많이, 너무 빨리 준다. 우리는 그들이 받을 준비가 되기도 훨씬 전에 그리고 우리의 말을 이해하기도 훨씬 전에 너무 많은 진리를 알려 주려 한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그 후에 그분께서는 ‘나를 따라오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다”(치료봉사, 143).

그들의 준비에 따라 우리의 증언의 속도를 주의하여 조절하는 것을 알려 주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시는 음성을 듣는 것이다. 사람이 언제 준비가 되는지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잘 아신다. 두 번째는 그들이 삶에서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를 주의하여 보는 것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서 충격적인 일을 경험하거나 변화의 시기를 겪을 때 영적인 화제에 마음을 여는 경향이 더 많다. 그들이 이혼의 과정을

겪고 있거나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나 심각한 질병을 경험하고 있는가?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갔거나 새로운 직업을 얻었거나 혹은 실직을 하였는가? 막 결혼을 하였거나 아기가 태어나려고 하는가? 인생의 다른 주요한 일들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것이 준비의 신호이다.

만약 당신이 훌륭한 경청자이며 배려심이 많고 동정 어린 사람이라는 평판이 있다면, 사람들은 당신에게 그들의 짐과 염려를 나눌 것이다. 당신이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만약 고통과 상실의 원인을 확인할 수 있다면, 사람들이 그들의 깊은 내적 상실감을 나눌 때에 당신의 경청 기술이 매우 중요한 순간으로 당신을 이끌 것이다. 이러한 순간이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눌 사역의 순간인 것이다.

대화를 방해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면서 그 순간에 준비되었는지 시험하기 위해 물을 수 있는 간단한 질문이 있다. 다음과 같이 물어보라. “이런 상황에서 당신을 도울 어떤 영적인 자료가 있나요?” 말하기를 멈추고 들으라! 상대방은 당신에게 그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을 이야기할 것이다.

6. 인내

2~3년 전, 우정(관계) 전도 세미나에서 한 남자분이 내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었다. “가장 당황스러운 때는 제가 직장이나 이웃의 사람과 친구가 되는데 시간을 투자하고 저의 경청 기술을 사용하여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의 삶에 기회의 문을 열었는데, 그들이 그 문을 닫아 버릴 때입니다.” 그는 누군가가 영적인 것에 관하여 진지하게 이야기할 준비가 될 때가 드문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만약 당신의 믿지 않는 친구나 교회에 다니지 않는 친구가 그들의 영적인 필요에 대하여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기회가 되어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질문을 하였는데 그들이 화제를 바꿔 버린다면 그다음에 무엇을 하겠는가? 실망했다는 것을 보이지 말라!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보려는 것일지도 모른다. 비신자들은 종종 자신들이 신자들에 의해 압력을 받고 있다거나 조종받고 있다고 느낀다고 토로한다.

증언을 위해 교회는 여러 해 동안 많은 압력을 넣는 전략과 사람을 다루는 접근법을 가르쳐 왔다. 자주 이러한 방법들이 세심함이나 수완이 없는 신자들에 의해 적용되어 왔다. 그것이 일종의 감정적인 “상처”를 초래하여 영적인 것에 관해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데 장벽을 쌓아 버린다. 당신의 친구는 더 대화를 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될지도 모른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심리적인 전투 가운데 살고 있다. 따라서 영적인 대화를 할 기회가 왔을 때 “내버려 두라.”고 부추기는 사탄의 미묘한 압력이 있다. 특히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를 갖는 믿는 친구가 있어서 기회가 다가올 때는 더욱 그러하다. 기억해야 할 것은 타이밍을 주관하시는 분은 당신이 아니라 성령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성령은 인내하며 정중히 마지막 기회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신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마 18:14). 그분은 사랑하므로 슬퍼하시지만 어떤 사람들은 영원히 거절하고 저항한다는 것을 아신다.

만약 당신의 친구나 동료가 영적인 것에 관하여 이야기할 준비가 되지 않았더라도 포기하지 말라. 계속해서 그들과의 우정을 즐기라. 계속해서 경청하며 그들의 필요에 부응하라. 또 다른 기회가 다시 오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에게 보이신 무조건적인 사랑의 실재에 대한 시험이 될 것이다.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에 대하여 우리와 이야기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타낼 수 있을까? 우리는 진정으로 나눌 만한 것을 가지고 있는가?

7. 무엇을 말할까

말을 통하여 당신의 믿음을 나눌 적절한 기회가 왔을 때, 무엇을 말해야 할까? 성경은 우리에게 특별한 공식이나 지침을 제공하지 않는다. 오랜 시간이 지나는 동안 가르쳐 온 정형화된 말들은 오늘날의 상황에 더 이상 맞지 않는다.

당신이 무엇을 말하든지 상대방이 그것을 진실되고, 정중하며, 정직하고, 유익하게 듣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표준에 맞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품성을 올바르게

드러내지 않는 것이다.

당신이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믿음의 영적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예언, 죽은 자의 상태, 안식일이나 어떤 다른 성경의 교리들과 같은 주제는 그 사람이 예수 안에서 개인적인 믿음의 관점으로 그러한 주제들을 바라볼 준비가 될 때까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관계가 기독교의 본질이다.

당신이 무엇을 말하든지 기억해야 할 것은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말하라는 것이다. 교회 안에서 자라 왔고, 보수적인 프로테스탄트 종교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는 우리는 우리의 테두리 밖에서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일종의 언어와 정의들로 이루어진 특별한 언어를 배워 왔다. 적은 퍼센트의 미국인들만이 이러한 “내부” 언어에 친숙하다. 그러므로 당신이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개인적인 믿음에 대해 이야기할 때, 종교적인 용어가 아니라 그들이 이해하기 쉬운 명확한 언어를 사용하라.

믿음을 나눌 기회는 질문의 형태로 오기도 한다. 종종 일상적인 질문일 수 있으나 때때로 그들의 삶에 실제적인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 애쓰며 그러한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오기도 한다. 당신이 이전 칼럼에서 제안한 “준비를 가능하는 질문”과 같은 질문을 물었기 때문에 기회가 올 수도 있다.

만약 당신의 친구가 당신이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듣기 원할 만큼 충분히 당신을 신뢰하고 있다는 확실한 표시가 있다면, 권위적인 태도가 아니라 적절한 대답을 유도할 질문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 시작하는 한 가지 좋은 방법은 “...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이다.

질문을 던지고 곧 어떻게 그리스도인 믿음이 그들의 상황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간단하고 기본적인 언급을 하라.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진지한 결심을 한다면, 그러면...” 그리스도인 믿음이 그들이 이야기한 특별한 필요나 상황을 위해 제공할 즉각적인 이점을 집어넣어라. 그리고 당신의 친구가 다른 질문을 하거나 그 주제를 다시 꺼낼 때까지 기다리라!

예를 들면, “당신의 삶의 중심에 영적인 가치를 두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나

요?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에 당신의 삶의 초점을 맞춘다면, 당신의 가정 안에서 다루어야 할 많은 갈등이 있을지라도 그분께서 당신에게 내적인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갖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 당신의 삶의 영적 기초를 둔다면, 그것이 당신이 제안 받은 그 일에 대해 결정할 기준을 제공할 것입니다.”

8. 말하지 말아야 할 것

우리가 증언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우리는 보통 무엇을 말하느냐에만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무엇을 말하지 말아야 하는지도 동등하게 중요하다. 사실, 비신자들에게 가장 큰 걸림돌은 우리가 종종 너무 많이 이야기한다는 사실에 있다.

완전히 새로운 정보는 많은 비신자들에게 대화의 걸림돌이다. 당신이 성경 연구나 전도 집회, 안식일학교와 다른 교회 활동에 일정한 시간을 참여하고 있다면, 보통의 사람들이 아는 것보다 더 종교에 대해 많은 사실과 개념을 알고 있는 것이다. 당신의 친구에게 모든 것을 한꺼번에 알려 주려 애쓰지 말라. 아주 조금씩만 알려주라. 그리고 그들의 질문을 기다리라. 그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복잡하다면 그들에게 질문에 대답하는데 3단계가 걸린다고 경고하라.

정직하라. 너무 많은 약속을 하지 말라. 도우려는 열심 때문에 그리스도를 그들의 삶에 영접하는 것이 어떻게 차이를 만드는지 증명하려 한다. 나는 신자들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듣곤 한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직장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기를 고쳐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서는 요구만 있으면 언제든지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다. 특히 개심을 위한 은연중의 교환으로 기적을 약속하는 것은 우리의 자리가 아니다. 이 세상에는 실직을 당했거나 가난한 수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있다. 신실하고, 평생 채식주의자이며, 술을 입에 대지도 않았으나 암으로 죽어 가는 재림교인들이 있다. 아이를 병이나 사고로 잃은 신실한 신자들이 있다.

오해하지 말기를 바란다. 내가 기적을 베푸시는 주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기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훨씬 덜 일어나기 때문이며, 우리는 왜 기적이 일어나며 언제 일어나는지 정말 이해하지 못한다. 또는 더 정확히 말하면, 왜 일어나지 않으며 언제 일어나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만약 당신이 나누는 증언이 너무 좋아서 사실이 될 수 없는 듯 들린다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은 약속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당신은 당신의 친구가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든지 간에 그분의 격려, 지지와 위안을 약속할 수 있다. 당신은 그분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약속할 수 있다. 당신은 그분이 주시는 목적과 방향 감각을 약속할 수 있다. 옳고 그름에 대한 명확함. 당신은 그리스도께서 계시록 21장에 약속하신 “더 이상 고통이나 질병 또는 죽음이 없는…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할 수 있다. 당신은 그분이 다시 오셔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는 그분의 약속을 나눌 수 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렸으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요 14:1~3).

9. 질문

비신자나 신앙을 실천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당신과 나누는 “어려운” 질문과 거절에 주저하지 말라. 이것은 중요한 대화이다. 이것은 개인적인 사역에서 진정으로 할 일이다. 질문을 주의 깊게 듣고 정중히 대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한 사람이 당신과 대화를 시작하기 원하고 그들의 실제적인 염려를 나눈다는 사실은 신뢰와 개방의 표시이다. 상대방의 영적인 것에 대한 호기심은 소중히 여겨져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신앙이나 영성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이 당신을 놀라게 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질문들은 많은 크리스천 책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고전적인 질문들이 절대 아니다. 시대가 바뀌었다!

“내가 왜 종교에 관심을 가져야 하죠? 지루하고 사실이 아니며 나오는 상관이 없잖아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왜 그렇게 위선자가 많은가요?” “기도가 무슨 도움이 되나요?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요?” “왜 교회에서는 항상 돈을 내라고 하죠?” “왜 하

나눔께서는 고통을 허락하시나요?” “왜 이 세상에는 이렇게 종교가 많은거죠?” “영적인 것은 좋은 것이지만 조직화된 종교가 정말 필요한가요?” “왜 종교가 큰 사업처럼 운영이 되나요?” “종교가 실제적인 신앙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이러한 모든 질문이 최근의 연구에서 종교에 활동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오늘날의 성인들이 자주 하는 질문이다.

절대로 상대방을 비하하는 말을 사용하지 말라. 친구의 거절을 신중히 받아들이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라. 질문과 질문을 한 상대방을 정중하게 대하라. 당신이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 줄 수 있는 가장 힘 있는 방법은 당신이 특정한 대답을 하는 데 있지 않고, 어떻게 질문을 다루냐에 있다.

그들에게 정직한 대답을 하라. “잘 모르겠네. 너를 위해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볼게.”라고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며 또는 주제를 바꾸지 말라. 당신의 친구가 대화를 이끌어 가게 하라. 상대방의 질문을 잘 다루되 다른 화제를 꺼내지 말라. 만약 질문에 대한 답이 복잡하다면, 다음과 같이 먼저 말해 보라. “그것을 대답하려면 몇 분이 걸리겠는걸.” 또는 “그 대답은 몇 단계가 필요하겠어.” 당신이 친구와 서로 논쟁하기를 즐긴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논쟁하지 말라. 논쟁을 해야 한다면, 특별한 주의를 요하라. 스포츠나 정치 또는 기술적인 어떤 것에 대해 논쟁하는 것은 아주 개인적인 영역의 영적 주제와는 다르다.

도전적인 질문은 좋은 것이다. 그것은 당신의 친구가 당신이 함께 나눈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다.

10. 이야기

믿음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는 좋은 방법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이야기는 사실에 대한 언급보다 훨씬 더 개인적이다. 스토리텔링은 폭넓은 사람들에게 다가가며 배경과 세계관의 차이를 훨씬 쉽게 여과시켜 준다. 진리에 대한 언급이 때로는 오만하게 들려서 바로 저항을 받는 반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대개 개방적으로 들려서 저항을 덜 받는다.

오랫동안 사용된 방법은 시대의 징조를 언급할 기회로써 뉴스에 나온 기사들을 사용하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현시대의 사건들에 대한 비평은 친구나 전문직 종사자들에게는 단순히 독선적으로 들릴 수 있다. 반면에, 만약 우리의 개인적이고 영적인 필요를 보여 주는 이야기, 우리의 영적 여행에 대한 힌트를 주는 이야기들과 같은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적절하게 나누다면 그것은 진실하고 심지어 공감이 가게 들릴 것이다.

교훈을 주는 내용이 있다면 조금 있는 단순한 방식으로 나누어진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이야기도 유익할 수 있다. 사실, 이야기의 교훈을 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일 것이다. “그 이야기는 내가 느끼게 하네요.” 또는 “그 이야기는 내가 묻게 하네요.” 기억해야 할 것은 한 문장 이상 이야기 하는 것은 보통 너무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다.

만약 상대방이 당신에게 믿음에 대하여 도전적인 질문을 묻는다면 믿음을 부족을 보여 주는 언급을 한다면 단정 짓는 말로 대답하려는 충동을 자제하라. 그리고 이야기를 들려주라. 예를 들면 “5년 전 제가 …에서 일할 때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을 지지할 수 있는 곰곰이 생각해 볼 다른 견해를 제시하라.

항상 “그리고”를 사용하라. 결코 “그러나”를 사용하지 말라. 논쟁을 피하고 단순히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는 것과 함께 부가적인 증거를 제시하라. 사람들이 마음을 바꾸는 것은 나의 논쟁이 상대방보다 더 좋아서도 아니고 나의 증거 자료가 상대방보다 더 많아서도 아니다. 사람들이 마음을 바꾸는 것은 삶의 더 큰 그림을 보았기 때문이다.

물론, 당신이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이 훨씬 더 힘이 있을 것이다. “저도 그와 같은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를 발견했습니다.” 물론 당신의 이야기가 아닌 것을 당신의 이야기인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된다. 진실함이 좋은 이야기보다 더 중요하다. 빌려 온 이야기처럼, 포장된 이야기는 진실함의 증거를 줄 수 없다.

만약 당신이 모태 신앙이라서 하나님을 믿게 된 이야기가 없다면 어떻게 할까? 상관 없다. 하나님을 믿게 된 전통적인 이야기는 오늘날의 많은 사람에게 별로 효과가 없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도 당신은 정직하게 나눌 수 있는 많은 축복을 받지 않았는가. 그럴 지라도, 당신의 믿지 않는 친구들의 내면의 세계를 이해하려는 신중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과소평가하지 말라.

11. 시작

당신이 친구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기회를 가졌다면, 서로 기도한 후에 바로 해야 할 매우 중요한 일이 있다.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 기본적인 시작 단계가 있는데 이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 삶에 중요한 것이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과 살펴보아야 할 중요한 것이 적어도 4가지가 있다.

1) 연결을 유지하라. “나는 예수를 나의 영적 삶의 중심에 모셨습니다.”라고 말하고 그분과 연결되는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것은 마치 결혼을 하고 결혼 서약을 한 후에 다시는 배우자와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과 같다.

새 신자가 즉시 그리스도와 매일의 대화의 습관을 시작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것은 그분께 이야기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 둘 다를 의미한다. 매일의 기도는 그리스도와 이야기하고, 나의 삶과 감정, 필요와 감사를 나누는 것을 포함한다. 매일의 성경 연구는 그분의 말씀을 읽음으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것이 나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묵상하는 것을 포함한다.

2) 그리스도 안의 가족을 만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눅 8:21).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그의 가족”과 “결혼을 하는” 것이다. 즉 이 세상에 있는 다른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형제와 자매이다. 새 신자가 즉시 매주 믿는 자들과의 교제로 만나기 시작하는 것은 필수이다. 이 교제는 새 신자가 어떤 질문을 해도 평안하고 그들의 삶에 문제를 내어 놓고 그들의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소그룹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새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자랄 수 없을 것이다.

당신의 교회에 문화적으로 알맞으며, 새 신자가 성경을 배우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

라는 것을 돕도록 고안된 소그룹이나 목사님의 성경 교실이나 주 중의 모임이 있는가? 만약 없다면, 그러한 그룹이 있는 곳을 아는가?

3) 그리스도의 사명에 참여하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세상을 위해 일하고 계시며, “예수를 따르라”는 부르심은 본질적으로 그분의 사역의 일부가 되라는 부르심이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쓰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라고 권고한다. 각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그들의 은사를 사용해야 한다.

4) 그리스도의 가치를 중심으로 당신의 삶을 재배치하라. 그분께 배우라.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롬 12:2, 쉬운 성경).

이것은 모든 신자들에게, 교회에서 태어난 사람일지라도, 어려운 여행임이 증명되었다. 우리는 자기기만에 빠져서 그리스도의 가치를 분별하기 힘들어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한다. 율법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가치를 단순화하여 짧고 긴 규칙으로 만든다. 자유주의자들은 너무 추상적인 원리에 초점을 맞추어 현실 세계와 거의 상관이 없게 만든다. 이것은 여행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이 시점에서 너무 많은 짐을 내리지 말라. 야기들은 하룻밤 만에 걷기를 시작할 수 없다. 낙담이 되기도 하지만 예수를 따르는 것이 당신의 친구가 직면하고 있는 특별한 필요를 위해 갖게되는 유익을 자주 강조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 여행은 당신의 매일의 기도를 필요로 한다.

12. 제자

“제자”는 단순한 팬이나 지지자가 아니라 학생, 견습생 즉 따르는 사람을 의미한다. 예수님은 “열두 제자”보다 더 많은 제자가 있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의미 있고 진실한 영적 관계를 가진 모든 남녀는 그리스도께 배우는 제자이거나 그리스도께 배우기를 멈춘 낙오자이다.

“제자도”는 그리스도께 배우는 과정이며, 그리스도인 견습 기간이나 믿음에서 멘토링의 과정이다. 당신의 친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랄 때에, 그들이 특별한 영적 멘토와 지지 그룹을 갖는 것은 극히 중요하다.

반복되는 연구는 만약 새 신자가 첫해에 교회에서 적어도 6명의 개인적인 친구를 사귀지 않으면, 도중하차하기 쉽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 연구에서 “개인적인 친구”는 새 신자가 교회 모임이나 그룹 밖에서 비형식적인 시간을 보내는 개인과 새 신자와 개인적이고 영적인 주제를 논의하는 개인으로 정의된다.

소속감은 믿음에 앞선다. 새 사람을 교제의 씨실과 날실로 엮기 시작하는 것은 너무 이른 것이 결코 아니다. 그들을 당신이 생각하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도록 도울 수 있을 뿐 아니라 흥미, 교육, 문화적인 배경, 사회적 지위, 성격적인 면에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 소개하라.

성경 교리는 어떤가? 지난 500년에 걸쳐, 그리스도인들은 제자도를 추상적인 명제인, 단지 진리를 안다는 면으로 정의해 왔다. 그리하여 재림교인들은 전체적인 접근에 대한 근본적인 약속에도 불구하고 같은 불균형한 초점으로 고통을 겪게 되었다. 제자도에 대한 성경 교리는 삶의 전 영역-관계, 가족, 직업, 표현 예술, 건강, 돈, 시민권, 봉사-에서 예수를 따르는 것을 배운다는 맥락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엘렌 화잇은 100년 전에 이 불균형에 대해 썼다. “목회자들은 자주 이러한 중요한 사역의 분야-건강 개혁, 영적 선물, 구조적인 자선 행위 그리고 선교 사역 분야-들을 소홀히 한다. 그들의 노고에 많은 사람이 진리의 이론을 받아들일지 모르나, 결국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간직하지 않을 많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리뷰 & 헤랄드, 1878년, 12월 12일).

이것은 성경 교리를 배우는 일이 무시되어야 한다고 제안하는 것이 아니다. 소그룹 사역이 중요한데, 그것은 성경의 진리를 배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법들을 배우는 것과 자연스럽게 섞일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의 친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성숙에 이르도록 하고자 한다면 “그리스도인 생활학교”는 필수 경험이다.

새 신자가 배울 필요가 있는 다섯 가지 기본적인 것들이 있다. (1)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의 삶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2)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획의 결정적 모습이다. (3) 하나님은 삶의 질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4) 하나님은 당신과 시간을 함께 보내길 원하신다. (5) 그리스도는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그분의 가치에 따라 세워질 새로운 세상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다.

28개 기본 성경 교리들이 이러한 “다섯 손가락”과 연결될 수 있다.

“손”은 매일의 삶의 현실과 관계의 고리를 나타낸다. 제자도에서 어떤 의미 있는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손가락”이 “손”과 함께 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3. 수용성에 따른 오이코스 초청 전략

① 수용적인 오이코스를 초청하려면?

복음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수용적인 오이코스를 찾아내는 것은 전도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간단한 질문으로 쉽게 수용적인 오이코스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 기독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신앙을 가져 보는 것이 어떠세요?
-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 제가 예수님을 소개해도 될까요?
- 저희 모임에 초대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극적인 초청이 관건이다.

친한 친구가 수용적인 경우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통계에 의하면 비신자 네 명 중 한 명은 수용적이어서 친한 친구가 교회 가져다 적극적으로 초청하면 기꺼이 따라가겠다고 답했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권하지 않기 때문에 전도의 기회를 놓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행 20:26~27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 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라

(a) 나의 집이나 소그룹으로의 초청

전 3:11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시대와 문화가 바뀌어도 사람들 속에 있는 영원을 사모하는 기본적인 욕구와 열망

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이코스들을 나의 집이나 소그룹에 적극적으로 초청합니다.

(b) 적극적인 복음 제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에 본능적으로 영적인 면에 관심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복음을 제시합니다.

(c) 성경 읽기와 성경 공부를 함께함

성경은 무한한 자극의 원천입니다. 성경을 읽는 중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d) 기독교 서적이거나 설교 테이프, CD, MP3 등을 선물하고 그 내용을 함께 나눔

(e) 방문, 전화, 편지, 문자, 카톡, 밴드 등으로 교제 및 기도 제목을 나누고 중보기도 관계를 형성함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교제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또한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면 좋아하고 인생의 위기 상황에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찾아가서 위로하며 기도합니다.

(f) 각종 기독교 행사로의 초청

기독교에 관심이 있지만 교회에 익숙하지 않아 마음을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모임에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초청하고 건강 세미나, 금연학교 등을 통하여 교회에 대한 어색함을 떨쳐 버릴 수 있도록 도우십시오.

수용적인 오이코스를 전도하기 위한 당신만의 전략이 있다면 소개합니다.

② 중립/무관심 오이코스를 초청하려면?

이들은 주로 어느 특정한 종교와 상관없이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과 주장을 가지고 종교적인 요소, 즉 신의 존재와 사후 세계 등을 판단하는 자들입니다.

특징: 주관적인 생각과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는 폐쇄성을 갖고 있음
영적인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의 기도와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a) 교회의 좋은 이미지가 중요하다.

무신론적 비교인들은 교회의 실상을 잘 모르기 때문에 교회의 이미지에 따라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을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 교회의 좋은 이미지를 확실하게 심어 나가야 합니다.

(b) 신앙생활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유발시켜라.

관계가 좋은 중립/무관심한 오이코스들에게는 기회가 닿는 대로 신앙생활과 교회에 대한 좋은 점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여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머리에 자리 잡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관계가 좋지 못하거나, 아직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오이코스들에게는 역효과가 나지 않도록 조심해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c) 변화된 자신과 삶(간증)이 전도의 열쇠이다.

무신론자들에게는 성도들의 변화된 인격과 성숙한 삶이 중요합니다. 많은 무신론자들이 예수 믿고 변화된 가족들의 모습을 보고 '아 뭔가가 있구나'라는 생각에 기독교에 마음이 끌렸고 급기야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고 대답합니다. 게다가 변화된 인격과 삶은 감동을 자아내어 닫힌 마음을 활짝 열게 하고 하나님과 신앙생활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만듭니다.

(d) 인생의 위기상황에서는 누구나 의존자, 절대자를 찾습니다.

사람들은 위급할 때 누구나 하나님을 찾습니다. 한 인류학자는 '사람은 불치병적으로 종교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인생의 위기 상황을 포착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위기상황을 포착하여 전도한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e) 정성 어린 전도 편지 쓰기

정성 어린 신앙의 편지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마음을 열게 합니다.

(f) 40일간 기도 작전에 돌입한다.

비교인 오이코스를 위한 중보기도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전도 전략입니다. '교회 나갑시다.',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하면 핀잔을 주는 오이코스들도 '병상에 계신 당신 아버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대개의 경우 고맙다고 인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 40일간 작정 기도를 해 봅시다.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오이코스들에게는 같이 새벽기도에 나가자는 전략을 통해 전도해 봅시다.

(g) 만찬에 초대하기

정성스럽게 음식을 마련해서 자신의 집으로 비신자들을 초청하는 것도 좋은 전도 전략입니다.

③ 부정적인 오이코스를 초청하려면?

(a) 부정적인 오이코스

부정적인 오이코스들은 한마디로 '예수님과 기독교는 좋은데 교인들과 교회가 싫다'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교회에 안 나오는 이유는 단지 교인과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와 편견 때문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복음 전도를 위해 이 땅에 존재하

는 교회와 교인이 오늘날 복음 전도의 장애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신자들이 교회 나오기를 거부하는 부정적인 요인들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수용적인 상태로 변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평소에 교회에 대해 부정적인 비신자들도 부모나 친구의 죽음, 관계의 깨어짐, 자녀 문제, 질병, 사고 등 인생의 중대사에 맞닥뜨리게 되면 세계관과 인생관이 갑자기 뒤바뀌어 수용적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를 찾아 서로 나누어 봅시다.

(b) 거부하는 오이코스

거부하는 오이코스는 반기독교적인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교인들을 싫어할 뿐 아니라 오히려 교인을 만나면 기독교를 떠나도록 설득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 역시 전도 대상자인 것을 기억하여 전도하기를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때로는 성령께서 수용적인 상태로 그 마음 받을 갈아 줄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전도의 때를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을 향한 관심의 눈길을 떼거나 중보기도 하기를 멈추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비신자들이 교회와 기독교에 거부적인 요인들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c) 기다림의 영성

거부하는 오이코스들을 가슴에 품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은 결코 전도의 소극적인 자세가 아닙니다. 김치가 익기 위해서는 발효 기간이 필요하듯이 전도도 기다리는 가운데 수용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종종 경험합니다.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으로(눅 15장) 오이코스들을 품고 기다리는 영성이 필요합니다.

“생명은 품어야 탄생합니다.”

코이노니아 생활전도

발행일 2015년 10월 15일

발행처 한국연합회 선교전략연구소

발행인 김대성 | 편집인 한송식 | 개발자 이한길 | 디자인 이혜연, 배혜영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홈페이지 <http://mtri.or.kr> | 전자우편 hanss417@hanmail.net

대표전화 (02)3299-5264

정가 4,000원

구입문의: 한국연합회 선교전략연구소

Copyright © 2015 한국연합회 선교전략연구소

재림성도 양육단계 및 교재

1. 신자되기 (Making Adventist)



2. 제자되기 (Training as Disciple)



3. 일꾼되기 (Serving as Servant)



운영 지침서



전도 훈련 교재 II

코이노니아 생활전도



이 교재는 재림 성도의 코이노니아 생활 전도 실천을 돕기 위해 개발된 전도 훈련 교재입니다. 21세기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가장 효과적인 전도는 한마디로 '관계중심'의 생활 전도입니다. 내가 관계 맺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 좋은 관계망을 통해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 방식입니다. 본 교재를 통해 재림 성도들이 일상의 삶을 통해 접하게 되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적극 실천되기를 바랍니다.

1과 : 좋은 나무

2과 : 나는 누구인가?

3과 : 본업 회복하기

4과 : 성령과 기도에 집중하기

5과 : 나의 삶이 복음입니다

6과 : 오이코스를 품으라

7과 : 오이코스와 친해져라

8과 : 오이코스를 초청하라